

윤석열 대통령, 박근혜 前 대통령 대구 사저 방문



윤석열 대통령은 11월 7일 오후 대구광역시 달성군 박근혜 前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했다. 윤 대통령이 지난 달 26일 국립현충원에서 열린 박정희 전 대통령 44주기 추도식에 참석해 조만간 찾아뵙겠다고 말한 뒤 12일 만에 방문이 이뤄졌다. 작년 4월에 윤 대통령이 박 前 대통령을 방문했을 때에는 박 前 대통령이 집 안에서 맞았으나, 오늘은 현관 계단 아래까지 내려와 윤 대통령을 반갑게 맞았다. 박 前 대통령은 “먼 길 오시느라 고생하셨다, 들어가시죠”라며 윤 대통령을 사저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지난 번에 왔을 때보다 정원이 잘 갖춰진 느낌이 든다”고 하자, 박 前 대통령은 “대통령님께서 오신다고 해 며칠 전에 잔디를 깨끗이 정리했다, 이빨까지 한 거죠”라고 웃으며 말했다.

윤 대통령과 박 前 대통령은 거실에서 강승규 시민사회수석, 이도운 대변인, 유영하 변호사가 배석한 가운데 즐겁고 화기애애한 분위기에서 1시간 가량 환담했다. 박 前 대통령은 차와 과일 등을 내놓았는데, 윤 대통령이 차 중에서도 우유를 미리 준비했다. 홍차의 농도도 윤 대통령의 선호를 미리 파악해 맞췄다고 합니다. 과일도 윤 대통령이 좋아하는 감과 배를 정성스레 준비했다. 두 전직 대통령은 기본적으로 날

씨, 사저의 정원, 달성군 비슬산 등 가벼운 주제부터 시작해 대화를 나눴다. 윤 대통령은 박 前 대통령에게 “사저의 뒷산이 비슬산이 맞냐”고 물으면서 “대구 근구시절 의대 교수가 TV방송에 나와 비슬산 자연이 질병 회복에 도움이 된다고 한 것을 들은 적이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박 前 대통령은 “비슬산에서 새들이 날아와 정원에서 놀다 가곤 한다”고 말했다. 대화 도중 박 前 대통령이 윤 대통령에게 “어떻게 강아지를 6마리나 입양했냐”고 질문하자, 윤 대통령은 “처음에는 위탁 돌봄을 했는데, 정이 들어 입양하기 시작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 시절 당시 국정운영을 되돌아보면서 배울 점은 지금 국정에도 반영하고 있다”면서 “산자부 창고에서 박정희 대통령이 주재한 수출진흥회의 자료를 찾았는데,

등사된 자료가 잘 보존되어 있어 박정희 대통령 사진까지 남아 있었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이 “수출진흥회의 자료를 읽어보니 재미도 있고, 어떻게 당시 이런 생각을 했는지 놀라웠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온고지신이라고 과거의 경험을 배워야 한다”고 하자, 박 前 대통령이 “어떻게 그걸 다 읽으셨나, 좋은 일자리는 기업이 만드는 것이니깐 회의에서 애로사항을 듣고 바로 해결해 줄 수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과 박 前 대통령은 박 前 대통령 재임 시절 정상외교 활동에 대해서도 대화를 나눴다. 박 前 대통령은 수소차에 관심을 표명했고, 윤 대통령은 최근 관련 산업 동향을 설명했다. 대화를 마무리하며 박 前 대통령이 “해의 순방 일정이 많아 피곤이 쌓일 수 있는데 건강관리 잘하시라”고 말하자, 윤 대통령은 “지난 번에 뵈었을 때보다 얼굴이 좋아지신 것 같아 다행이다, 건강 잘 챙기시기 바랍니다”고 박 前 대통령의 건강을 기원했다. 환담을 마친 후, 윤 대통령과 박 前 대통령은 잠시 정원을 산책했다. 사저 정원에는 이팝나무, 백일홍 등 여러 가지 나무와 꽃이 많았는데 박 前 대통령이 나무와 꽃 하나하나를 윤 대통령에게 설명했다. 설명을 들은 윤 대통령이 박 前 대통령에게 “젊은 시절부터 꽃과 나무에 관심이 많으셨는지” 묻자, 박 前 대통령은 “예전에 청와대 있을 때부터 꽃과 나무를 좋아했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이 사저를 나설 때 박 前 대통령이 차를 타는 곳까지 배웅하려고 했으나, 윤 대통령이 간곡히 사양하며 대문 계단에서 들어가시라고 해 박 前 대통령 대신 유영하 변호사가 차까지 윤 대통령을 배웅했다.

최광수/기자

경북도, 헴프 산업 규제개선 정책토론회 개최

국회의원회관서 전문가 초청 해외 규제 동향, 의학적 효용성, 국내 산업화 방안 논의



경북도는 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헴프 산업화를 위한 효율적인 규제개선 방안 마련을 마친 후 ‘헴프 산업 규제개선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책토론회는 농식품부와 중소벤처기업부 후원으로 김형동 국회의원 과 ‘해외에서의 헴프 산업화 현황, 의학적 효용성, 법적 규제사항’에 대해 발표하고 ‘국내 헴프 산업화 방향’에 대한 심층 있는 토론으로 진행됐다. 현재 국내에서 대마는 관할청 허가를 통해 섬유 및 종자, 성숙한 줄기와 뿌리의 활용을 위한 재배·사용이 가능하며 나머지 부위는 예외적으로 공무·학술연구·의료목적의 취급만 허용된다. 의료목적 대마는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에피디올렉스 등 4종의 대마 의약품이 승인되어 있다. 의료목적 대마를 허용하는 국가는 해외 50여 개국이며 우리나라도 이에 해당하나, 한국회귀필수의약품센터를 통한 수입 외에 정식 수입 절차를 통한 의약품 수입을 허용하지 않고 국내 대마 성분의 의약품 제조를 허용되지 않아 해외 국가와 비교할 때 과도한 규제를 적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마 성분을 활용한 다양한 질환에 대한 의약품 사용과 개발이 불가능하며, 환각성이 없어 해외에서는 식품·화장품으로도 활용하고 있는 대마 성분인 CBD(칸나비디올) 사용도 같은 규제를 받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는 대마의 환각성분인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의 함량이 낮은 대마(헴프)를 일반 농작물과 같이 재배를 합법화하고 헴프의 생산을 지원하고 있다. CBD 성분을 활용한 제품들은 국가별 관리 기준에 따라 별도의 디스펜서리에 서 판매하거나 THC 함량 기준(0.2%

이들)을 정하여 일반제품과 같이 관리하고 있다. 아시아권 국가에서는 태국이 대마를 규제 막아 목록에서 제외하여 저 THC 대마(헴프)는 일반제품과 음식에도 사용할 수 있으며, 의약품 대마 제품의 사용을 승인하고 제품개발과 수출을 위해 애쓰고 있다. 일본은 환각성이 없는 CBD 성분은 식품·화장품에 사용하고 있으며 의료목적의 대마 재배, 제품개발을 위한 법령 개정안 상정을 준비하고 대마 성분 의약품의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해외 규제 동향 공유와 함께 국내 마약류관리법 개선 방안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해외의 오남용 사례에 대해 분석하고 산업용 헴프 규제자유특구의 실증 결과를 활용한 국내 실정에 맞는 규제 개선 방안이 검토됐다. 발제자로 참석한 한국법제연구원 이기평 연구위원은 “삼국시대를 거슬러오는 오랜 전통적인 산업이지만, 그동안 규제로 묶여 있던 대마의 산업화를 위해서는 과학적인 연구 결과와 해외 합법화 사례를 바탕으로 국내 대마 활용 범위에 대한 합의와 안전관리 기준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본은 의약품 대마 합법화를 위해 ‘22년 후생노동성 주도하에 4차례의 ‘대마규제검토위원회’를 개최하여 대마 규제 법제정 방향에 대한 합의를 도출했다. 경북도 관계자는 “이번 정책토론회를 계기로 국내 대마 관련 규제개선에 대해 더욱 활발히 논의해 합리적인 방안을 끌어내기를 기대한다”며 “국내 헴프 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앞으로도 규제개선과 기업지원에 앞장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서울시, 대중교통 빈대 방역 대책 선제적 추진... 차량 집중 방역 강화

시, 지하철·버스·택시 교통수단 대상 방역 대책...선제적 대책 및 특별관리 나서

서울시는 최근 발생한 빈대 출현 사태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시민 누구나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마련을 위해 대중교통 시설 방역 강화 관련 특별 대책을 신속하게 추진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그간 코로나19 등 확산세가 빠른 감염병에도 대중교통 전 수단을 대상으로 집중방역을 추진하며 성공적으로 대응한 경험을 보유하고 있다. 또한 ‘빈대 제로도시 프로젝트’ 등 종합 대책을 대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만큼 관련 대책에 따라 대중교통 시설 내 빈대 확산을 사전에 차단하고, 현장 중심의 방역, 방제 관리를 실시하는 등 다수의 시민이 이용하는 대중교통 환경을 안전하게 지켜나간다는 취지다. ● 서울 지하철, 고온 스팀 등 관리 강화...입출고시 점검 및 향후 직물 소재 의자 변경 추진 지하철의 경우 평상 시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주요 대중교통 수단임에 따라, 해외 빈대 확산 소식이 알려졌던 시점부터 발 빠르게 대응에 나서고 있다. 특히 좌석 직물 소재 등에서 빈대 발생 우려가 있는 만큼, 서울시와 철도운영기관이 함께 열차 및 역사 관리를 철저히 시행 중이다. 시는 지난달 각 도시철도 운영기관에 전문 방역업체 검역 의뢰와 방역체계 정비, 방역 철저, 식약처 인증 제품 사용 등을 주문했다. 이에 서울 운영 지하철 전 노선 모두 기지 입고 및 출고 시 의자 상태를 수시로 점검하는 등 지하철 객실 위생 상태 확보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 서울교통공사는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준 방역 기준인 연 9회보다 횟수를 한층 강화한 연 30회의 방역을 시행해 열차를 관리하고 있으며, 직물 의자의 열

우 고온 스팀 청소기로 스팀살균, 살충을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전문 방역 업체를 통해 빈대 서식 유무를 진단중인 한편, 직물 의자를 단계적으로 빈대가 서식할 수 없는 플라스틱 재질 등으로 교체할 예정이다. 그 외 9호선과 경전철인 우이신설선, 신림선의 경우에는 열차 일일점검을 통해 빈대 발생 징후 시, 보건소 및 시 관련부서와 공동 확인하고 빈대가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차량에 대하여 집중방역하도록 했다. 9호선, 우이신설선, 신림선 모두 방역 강화를 위해 객실 의자 고온스팀 세척을 추가 시행하고 승객 이동이 이뤄지는 승강장, 대합실, 화장실 등 역사에도 빈대 퇴치에 유효한 방역 약제를 분사하여 관리하고 있다. 이에 더해 시민 불안 해소와 피해 발생 방지를 위해 시민 신고, 민원 접수에도 발빠르게 나선다. 또 지하철 앱, 120 및 고객센터 문자 신고 등을 통해 편리하게 빈대 관련 시민 신고를 할 수 있으며, 해당 열차를 방역 소독 관리하는 등 신속하게 현장 대응을 추진한다. 사전 관리뿐만 아니라 시민 불편 해소가 중요한 만큼 현장 관리에 만전을 기할 예정이다. ● 버스도 빈대 맞춤 특별 방역 조치 예정...살균 소독 등 차내 관리 버스의 경우 차량 내 직물소재 의자가 거의 없지만, 공항버스 등이 운영되는 만큼 빈대 맞춤 방역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시내, 마을버스에도 빈대 출현 상황을 모니터링하고, 방역 등 관리를 실시한다. 서울시는 시내·마을버스 조합과 공항



버스 및 업체에 빈대 살충을 위한 추가 방역을 실시하도록 조치했다. 서울시는 버스 내에 빈대 출현 상황을 상시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빈대가 출현할 경우, 기존 방제에 추가하여 차량 내부에 고온 스팀 청소를 추가 방안도 검토할 예정이다. ● 직물소재 없는 택시도 1일 2회 차량 관리 실시...외국인 관광택시도 대상 택시 역시 마찬가지로 차량 특성 상 직물소재가 거의 없지만, 모든 택시(장애인콜택시, 외국인관광택시 등 포함)를 대상으로 1일 2회 이상 소독제, 물티슈, 청소기 등을 사용하여 차량 관리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법인 택시의 경우차고지에서 차량 관리를 실시하고, 개인택시도 실태 점검과 관리를 통해 빈대 등 방역 관리를 시행한다. 서울시는 택시 내 차량 관리 및 빈대

최광수/기자

전남도 민간정원 '함평천지몽베르' 본격개방

식물정원·대숲 전통정원·문화정원 3가지 주제로 조성

전라남도가 7일 제26호 민간정원으로 등록된 ‘함평천지몽베르’ 여는 날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행사에는 이상익 함평군수, 안상현 전남도 환경산림국장 등이 참석해 민간정원 현판을 달고 제막식을 했다. 함평 학교면에 위치한 함평천지몽베르는 언덕 위 정원으로 함평천지가 한눈에 들어오는 탁 트인 경관이 유명해 관람객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이곳의 메인 정원인 식물정원은 정원 주 부부가 30여 년간 수집한 170여 종, 2천 그루 이상의 식물이 다채롭게 조화를 이루고 있다. 또 조상 대대로 300년간 보존해온 대숲으로 이뤄진 전통 정원, 결혼식 등 문화행사가 열리는 문화 정원까지 총 3가지 주제 정원으로 조성돼 정원마다 색다른 경험을 선사한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우리 군 첫 번째 민간정원의 등록을 알리는 ‘여는 날’ 행사를 개최해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며 “정원을 통해 함평의 아름다움을 더하는 것은 물론 지역민 삶의 질을 높이고 군 차원의 노력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안상현 전남도 환경산림국장은 “함평천지몽베르의 민간정원 등록으로 전남 정원 자원이 한층 풍부해졌다”며 “앞으로도 특색있고 우수한 정원을 적극 발굴해 도민 누구나 정원을 누리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간정원은 법인·단체 또는 개인이 조성해 운영하는 정원 중 심미적·문화적으로 그 가치가 뛰어난 곳을 도지사가 등록·관리하는 정원이다. 2017년 ‘힐링파크 숲속속섬’을 시작으로 11월 현재 총 26개 민간정원이 등록됐다.

박종배/기자

부산시의회, 『성인지 감수성 이해 특화과정』 교육 개최

11월7일, 성인지감수성 이해를 위한 특화과정 교육 개최



부산광역시의회는 시의원 및 전직원을 대상으로 성인지 감수성 이해 및 성평등 의식 향상을 위한 성인지 감수성* 이해 특화과정 교육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 성인지 감수성 : 성 차별, 성 불평등 인지 능력

이번 성인지 교육은 부산광역시 거점형 양성평등센터의 성인지플러스 교육 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진행된다. 성인지플러스 교육 프로그램은 기본과정, 특화과정, 심화 워크숍 과정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번에 진행되는 특화과정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한 이론 심화 강의

로 구성된다. 성인지 감수성 이해와 성평등 의식 향상, 성평등한 조직 문화 조성을 위한 실천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된다.

또한, 부산시의회는 특화과정을 개최한 후 성인지 감수성 강화를 위한 심화 워크숍도 개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양성평등에 대한 이해적 역량을 강화하여 건전하고 상호존중하는 조직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대구시의회, 유연한 언론 대응 및 효율적인 공무원 교육 당부

기획행정위원회, 공보관과 공무원교육원을 시작으로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본격 돌입



대구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11월 7일 대구시 공보관과 공무원교육원을 시작으로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 돌입해, 공보관실에 언론의 오보도에 대한 유연한 대응을 요구하는 한편, 공무원교육원에는 글로벌 환경변화에 맞춘 인재양성에 힘써줄 것을 각각 당부했다.

류중우 의원(북구1)은 대구시 콘텐츠 제작 용역 사업 계약이 공정하고 적절하게 이뤄져야 함을 당부하며, 대구시 SNS 운영 성과지표의 변경 필요성이 있음을 강조했다.

뒤이어 실시한 공무원교육원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전반적인 교육 운영 현황을 점검하며, 집합교육 실적, 교육원 이전 현황 등 사업의 추진 결과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임인환 위원장은 신규임용자의 교육 운영과정이 변경된 원인에 대해 질문하며, 변화하는 행정환경에 걸맞은 교육이 이뤄져야 함과 구체적인 교육원 이전 계획이 수립되어야 함을 강조했다.

전태선 부위원장은 역량강화교육 실적이 저조한 과목의 원인을 분석하여 대체할 교육과정 발굴을 당부했다.

박우근 의원은 교육 미수료자·미이수자 관리 현황을 짚고, 대구시정 연구과제 관련 교육이나 휴직자 및 시 전입자에 대한 교육 개발을 제안했다.

김대현 의원은 특정 인쇄업체에 일감 몰아주기와 계약 형태 및 방식을 지적하고, 교육생의 학습 관리를 철저하게 할 것을 당부했다.

이성오 의원은 퇴직자 준비 교육과정의 운영에 대해 질의하며 교육생의 만족도 조사와 데이터 분석을 통해 실질적인 효과가 있도록 교육 운영을 주문했다.

류중우 의원은 외래강사 확보 문제점과 애로사항에 대해 질의하며, 저명한 우수 외래강사 확보하여 양질의 교육을 당부했다.

윤근수/기자

경북도의회 '경상북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연구회'는 6일 도의회에서 "경상북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연구 용역" 중간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고 있는 경북행복재단 김동화 박사는 이번 중간보고회에서 도내 공공기관의 장애인 고용현황 및 타 지역의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 분석 결과와 장애인 고용 담당자와의 인터뷰 결과를 발표했다. 특히 장애인에 적합한 직무개발과 채용제도 개선, 기관에 필요한 인력 양성을 추진한 장애인 고용 우수사례는 도내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내다봤다.

연구회의 대표인 박선하 의원은 법적 의무고용이라는 책임 이전에 도내 18만 장애인이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기본적 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강조하고, 도내 공공기관이 선도적으로 장애인의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제도적 대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경상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는 11월 7일 경상북도환경연수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했다.

경상북도환경연수원으로부터 2023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24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은 위원들은 환경교육 추진현황 등 연수원 운영 전반에 대한 지적을 통해 강도 높은 감사를 진행했다.

김용현 의원(구미)은 경상북도환경연수원이 환경이나 ESG경영에 대한 교육을 통해 경상북도 하면 환경 청정지역이라는 이미지를 줄 수 있는 역할도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연수원에 대한 인터넷 홍보가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적극적인 홍보를 통하여 환경교육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도민들의 참여를 이끌어 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규탁 의원(비례)은 결산서와 관련하여 회계의 기준과 일관성이 없다고 질타했다. 또한, 특정인에 감사료가 많이 지급됐음을 언급하며 관련 규정에 따라 골고루 감사를 초빙해 줄 것을 요구했다.

정경민 의원(비례)은 연수원이 잉여금을 고려하지 않고 출연금을 증액하여 신청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질타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자료 중 22년도에 동일한 건으로 제출된 부분이 이번에는 누락됐다고 지적하며 행정사무감사자료 작성의 부실함을 지적했다.

김경숙 의원(비례)은 환경교육의 성과가 부족한 것은 모집시거나 사업대상 등

경북도의회,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모색

'공공기관장애인고용확대방안연구회' 연구용역 중간보고회 개최



이날 보고회에 참석한 박창욱 의원은 차이가 차별이 되지 않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장애인의 채용과정에서 최소한의 조건 요구와 자격요건의 완화가 필요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남영숙 의원은 장애인을 고용한 이후에도 장애인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인해 업무 배치가 부당하게 이어지는 사례를 언급하고, 맞춤형 지원과 교육 등을 통해 직군의 확대와 적절한 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철구 의원은 도내 공공기관에서 장애인 의무고용율이 충족되지 못하는 문제점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대책이 필요함을 지적하고, 최종보고에서는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줄 것을 연구진에 당부했다.

'경상북도 공공기관 장애인 고용 확대 방안 연구회'는 박선하 대표의원을 비롯하여 남영숙, 박창욱, 이우청, 이철구, 임기진 등 6명의 의원으로 구성됐으며, 경북행복재단에 의뢰한 이번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장애인 고용에 대한 대안 마련과 정책 제시 등 의정활동에 활용할 예정이다. 한편, 경북공무원에 대한 장애인 의무고용율은 2023년 3.6%에서 2024년 3.8%로 높아질 예정이다.

윤근수/기자

경북도의회 문화환경위원회, 경상북도환경연수원 행감 실시

경상북도환경연수원 본연의 목적인 환경교육에 집중해야 ...

을 고려하지 않은 것이 원인으로, 수요자 중심의 교육과정 개설로 이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작년 행정사무감사에 지적됐음에도 개선되지 않은 불명확한 회계감사나 결산 등은 문제가 있다고 역설했다.

연구식 의원(포항)은 연수원 사업 중 본연의 목적에서 벗어나는 문화사업 등에 배제하고, 기후위기가 탄소중립 등 중요한 내용에 집중해 주기를 주문했다. 또한, 환경교육은 도교육청의 역할이 중요하므로 교육청과의 적극적인 협업을 통한 연수원 역할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동업 의원(포항)은 경상북도환경연수원 주요 직위에 장기적인 결원이 계속되고 있다고 지적하며, 내부직원 발탁 등을 통한 정원 보충으로 직원들의 사기 직작은 물론, 기존 조직의 활용에도 힘써야 한다고 역설했다. 또한, 광역 환경연수원으로서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해 나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



다고 당부했다.

도기욱 의원(예천)은 경상북도환경연수원의 정제 인원이 전체의 10%에 달한다고 지적하며, 작은 조직에 정제가 많은 것은 좋지 않다고 개선을 요구했다. 또한, 환경교육 수탁사업이 22개 시군에 널리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고 지적하며, 환경교육을 도민들에게 널리 알리고 시군의 참여율을 개선하여 도민들이 함께 누릴 수 있는 환경연수원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대일 위원장(안동)은 경상북도환경연수원은 교육이 본래 목적이거나 에코그린합창단, 플로리스트 교육 등 목적과 벗어난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지적하며, 연수원이 가야 될 방향을 확실하게 설정하라고 당부했다. 또한, 이제까지의 환경교육이 듣고 이해하는 것이었다면 앞으로는 생각이 실천으로 바뀌는 환경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마무리했다.

윤근수/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김춘곤 의원, 약자와의 동행 정책으로 물재생센터 파크골프장 확대 필요

서울시 공공서비스 예약 통계조사 결과 예약순위 1위는 서남센터 파크골프장



서울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위원으로 활동 중인 김춘곤 의원(국민의힘, 강서4)은 6일 제321회 정례회 상임위 소관 물순환안전국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노인층과 장애인의 수요가 많은 파크골프장을 물재생센터에 확대 시설하도록 하고 하수 준설도 중간 적지로 주민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은 개선하라고 주문했다.

김 의원은 물재생센터 주민편의 시설 중 장애인들이 유일하게 이용할 수

있는 파크골프장이 여건상 일부 시간대에 제한돼 있고 60대 및 70대 이상의 주민들이 파크골프장을 많이 찾고 있기 때문에 파크골프장 시설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공공서비스예약시스템을 운영하는 서울시 디지털정책관의 최근 3년간 예약시스템을 이용한 통계자료를 보면 전체 연령대에서 1위를 차지한 부분이 60대와 70대 이상에서 서남센터 파크골프장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김 의원은 '약자와의 동행'을 정책 과제로 설정한 민선 8기 서울시

가 장애인의 보편적 행복 및 건강과 여가를 생각한다면 물재생센터에 장애인 전용 파크골프장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김 의원은 서울시와 자치구가 수해 방지를 위해 매년 하수도를 준설하고 악취나는 준설토를 주민 주거 지역 인근에서 20~30일 동안 말리고 있어 피해가 심각하다고 지적하며 주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서울시와 자치구가 준설토 중간 적치장 선정에 대해 충분한 검토 후 시행하라고 당부했다.

또 다른 지적사항으로 김 의원은 주민

들이 많이 이용하는 서남물재생센터의 ▲ 1처리장 포기조 덮개 부식 ▲ 1처리장 슬러지 처리시설 강판부식 ▲ 질식 위험 시설 시건장지 불량 ▲ 주민체육 시설 시설물 손상 ▲ 생태습지 관찰데크 추락위험 표식 필요 등 시설 안전과 주민 안전에 중점을 두고 질의했다.

김 의원의 질의에 대해 물순환안전국장과 서울물재생시설공단 이사장은 안전과 관련된 부분은 즉시 확인 후 조치하고 주민편의시설 확대와 주민 불편 사항은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최광수/기자

문화매일 <http://www.dailyculture.kr> 대표전화: 1899.9659

대표이사: 박영민 | 편집국장: 최재은 | 부회장: 박유석 | 임석경 | 청소년책임보도사: 최수진

(주)문화매일 등록번호: 서울 아 50710 | 등록일: 2013-07-12 | 제호: 문화매일신문 | 등록번호: 서울 가 50146 | 등록일: 2009-04-20 | 구독료: 월 15,000원 | 1부 800원

편집국: 02.2612.2959	정치부: 대선 (112)	문화부: 대선 (116)
광고국: 1899.9659	사회부: 대선 (113)	부동산부: 대선 (117)
	경제부: 대선 (114)	오피니언부: 대선 (118)
	스포츠부: 대선 (115)	지방부: 대선 (119)

서울본사: 서울특별시 금천구 가산동 714 스카이벨리2차 708호

경기본사: 경기 광명시 시청로 7 흥신 에이스텔 701호

사외(社外) 기고는 본보의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경기도의회 조성환의원, 경기도 자살유족의 날 기념 차담회 참석

경기도 자살예방을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노력해야

경기도의회 교육기획위원회 조성환 의원(더불어민주당, 파주 2)은 11월 07일 도지사 공관인 경기도 도담소에서 자살유족과 이해·공감·회복의 시간을 위한 차담회(도민에게 마음을 담아 토닥여주는 날) 행사에 참석했다.



이날 차담회는 경기도가 주최하고 경기도자살예방센터가 주관하는 행사로 조성환 의원이 2021년에 발의한 '경기도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매년 11월 셋째주에 진행되는 행사로 자살 유족을 위해 올해 처음 열리며 자살 유족 및 유관기관 종사자 등 약 40명이 참석했다.

조성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자살유족 등 지원에 관한 조례'는 자살유족의 통계 자료를 구축해 정확한 실태를 파악하고 자살유족 등의 상담 및 치료비지원, 자조모임, 동료지원 활동가 양성 등의 지원근

거를 담고 있고, 전국 최초로 자살유족을 위한 정책의 필요성을 공론화하여 자살유족 지원 사업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크다.

경기도 자살유족 지원사업은 자살 유족 상담, 자살유족 치료비지원, 자살유족 등 자조모임 지원, 동료지원

활성화 양성 및 활동 지원, 사업 담당 실무자 교육, 자살유족 등을 위한 자살예방사업 연계 및 홍보를 진행하고 있다.

조성환 의원은 "자살유족을 위로하는 첫 번째 차담회로 자살유족과 만나 소통을 통해 자살유족의 자조모임 활성화 방안 및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여 경기도 자살유족사업 추진에 도움이 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이어서 조 의원은 "자살유족에 대한 정부의 관심은 아직 부족하다"며, "경기도 자살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예산확보를 위해 도의회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돕겠다"라고 의지를 표명했다.

김범상/기자

경기도의회 박명수 의원 "농촌 인력난 심각...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확대해야"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 실시



국민의힘 박명수 의원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 박명수 의원(국민의힘, 안성2)이 7일 제37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농업 인력 부족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경기도가 외국인 계절근로자 사업 확대 지원 등 농촌 인력난 해소에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에 대한 개선책으로 지자체가 선정한 지역농협이 외국인 계절근로자를 고용해 농가를 지원하는 방법으로 농가의 부담을 줄인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가 신규로 도입됐다.

박명수 의원은 농민들의 긍지와 자부심을 고취시키고 농업의 중요성을 되새기는 농업인의 날(11월 11일)을 맞아 우리 농촌이 직면한 인력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발언에 나서게 됐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하지만 경기도에서는 올해 1개소 30명 규모로 운영하여 농촌 인력 확보에는 턱없이 부족한 형편이다.

박 의원은 "농촌에서는 일손 부족으로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농업 인력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경기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유는 예산에 있다"며, "경기도가 공공형 계절근로자를 포함하여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 운영을 지원하기 위해 투입하는 도비는 전무한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농촌에서는 일손 부족으로 불법체류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농업 인력이 적기에 공급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할 경기도가 제 역할을 못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공형 계절근로자 제도의 성공적인 운영을 위한 안정적인 근로계약 체결과 노무관리, 생활지원 등에 필요한 예산 지원, ▲외국인 계절근로자 수급을 위한 해외 지자체와의 업무협약 내실화 방안 강구, ▲농촌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지원 사업 확대를 위해 공공기관 내 유휴공간 장기임대 및 농어촌 빈집 활용 등 다각적으로 노력할 것을 도지사에게 건의했다.

인력 중개에 대한 지자체의 적극성이 부족하고, 인력관리 및 숙식제공 등 사업 참여의 문턱이 높아 많은 농가가 영두를 낼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박 의원의 설명이다.

끝으로 박 의원은 "농업은 나라의 기둥이자 뿌리"라며, "국민의 먹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농업인들이 일손 부족을 걱정하지 않고 농사 지을 수 있도록 경기도가 적극 나서달라"고 요청하며 5분 자유발언을 마쳤다.

김범상/기자

경기도, 청년 100명에게 해외 취창업 기회 제공... '경청 스타즈' 발대식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 확충 7개국 9개 도시 35개 기업체험에 청년 100명 참여



경기도가 해외 취·창업을 꿈꾸는 도내 청년에게 7개국 9개 도시에서 해외 기업 현장체험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사업 참여 청년들을 만나 "지금은 여러분들이 하고 싶은 일을 찾는 하나의 과정이라고 생각한다. 많이 부딪히고 도전해서 경험을 많이 쌓아보라"며 "실패도 해보고 좌절도 해보고 작은 성공을 맛보기도 하고 그런 경험 속에서 자기 마음속에 가라앉은 침전물들이 여러분들의 행복을 결정할 것이다. 그것이 이 프로그램을 만든

취지다. 마음껏 경험하시고 즐기시고 그 자체를 행복하게 즐기셨으면 좋겠다"고 당부했다.

발대식에서 청년들은 해외 직업체험 종료까지 사용할 이름을 '경(기)청(년) 스타즈'라고 명명하고 김동연 지사에게 프로그램 참여 동기, 자기개발 포부와 각오 등을 밝혔다. '경청 스타즈'는 경기청년들이 기회 사다리를 타고 올라가 별을 따는 것처럼 미래의 꿈을 이룬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통한 무역과 마케팅 실무 교육 프로그램, 글로벌리제이션 파트너사의 해외 지사와 연결된 채용 수요기업에서 체험을 진행하게 된다. 사업 참가자 100명 모집 시 388명이 신청해 3.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경기청년 해외 취창업 기회확충 사업은 해외 취업이나 창업을 희망하는 만 19~34세 청년에게 해외기업 현장체험을 통한 진로 탐색의 기회를 제공한다. 각 지역에 따라 현지 실무언어 교육, 1:1멘토링·직무교육, 기업 현장방문·체험, 현지 국내 기업 무역마케팅 실습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4주간 운영되며 현지 면접의 기회도 제공된다.

체험 지역은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13명) ▲필리핀 마닐라(13명) ▲베트남 하노이(12명)·호치민(7명) ▲대만 타이베이(6명) ▲인도 뉴델리(6명)·벵갈루루(7명) ▲일본 후쿠오카(30명) ▲우즈베키스탄 타슈켄트(6명) 등 7개국 9개 도시로 브릭스 인디아 트레이드(무역업), 해피톡(게임) 등 35개 기업이 참여한다. 참여 청년에게는 전 프로그램은 물론 숙식과 항공비가 지원된다.

특히, 사단법인 세계한인무역협회(OKTA)의 재외동포기업 참여 프로그램, 경기비즈니스센터(GBC)를

통한 무역과 마케팅 실무 교육 프로그램, 글로벌리제이션 파트너사의 해외 지사와 연결된 채용 수요기업에서 체험을 진행하게 된다. 사업 참가자 100명 모집 시 388명이 신청해 3.9대 1의 경쟁률을 기록하기도 했다.

김범상/기자

용인 에버랜드역 칸타빌 3일 오픈하며 본격 분양 돌입

단지 앞 전대·에버랜드역(에버라인) 초역세권 입지 확보 용인 반도체클러스터 반세권 입지

전대 에버랜드역 초역세권 입지를 품은 '용인 에버랜드역 칸타빌'이 3일 오픈하며 본격 분양에 돌입했다.

조성, 세종~포천고속도로 개설 등 미래 가치가 뛰어난 곳으로 많은 이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용인 에버랜드역 칸타빌'은 단지 바로 앞 전대·에버랜드역을 초역세권으로 누릴 수 있으며 전대·에버랜드역 탑승 후 수원분당선(기흥역, 구성역(GTX-A 예정), 미금역(신분당선)수원역 등) 접근이 용이하다. 향후 GTX-A(용인역) 개통 시 서울 및 수도권 북부 지역으로 빠르게 접근할 수 있으며 경강선 연장(계획)이 확정되면 더블 초역세권(환승역)의 입지까지 확보할 수 있다.

광역도로교통망 호재도 메리트다. 수도권 제2순환고속도로(포곡IC)가 '용인 에버랜드역 칸타빌' 단지와 인접해 있다. 내년 세종~포천 고속도로(안성~구리 구간) 개통 시 서울 접근성 및 광역교통망이 더욱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어 안심 통학권이 강점으로 꼽히기도 한다. 단지 앞에는 신대천 산책로가 자리해 수변공원 여가 생활을 누릴 수 있다.

용인 에버랜드역 칸타빌 관계자는 "최근 몇 년간 수도권에서 볼 수 없던 분양가로 준비된 만큼 많은 사람들의 홍보관 방문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며 "당 현장의 미래가치와

단지는 지하 2층~지상 최고 29층, 5개동 단지 규모를 갖춰지며 전용면적 59㎡(132가구), 74㎡(62가구), 84㎡(154가구) 등 총 348세대다. 실수요층의 수요가 두터운 중층형 평형으로 구성된 가운데 남향 위주의 배치, 4베이 구조(일부 세대 제외), 지상에 차 없는 단지 등 프리미엄 설계를 도입한 것이 메리트로 꼽힌다.

또한 도보로 이용 가능한 거리에 병설유치원, 포곡초, 포곡중 등이 위치해 학세권 환경을 갖췄다. 게다가 단지 내 어린이집 개설도 예정돼 있

세대주, 세대원, 다주택자 모두 청약이 가능하고 1순위 추첨제 60% 물량과 분양권 전매제한 6개월 등의 장점이 맞물려 투자자들까지 사로잡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용인 에버랜드역 칸타빌 건본주택은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보정동 죽전역 인근에 자리해 있다.

김범상/기자



수원시, 소상공인 대상 챗GPT, 스마트폰 활용법 교육

디지털 기자재를 탑재한 버스 '에듀버스'로 직접 찾아가 디지털 교육 제공

수원시는 지난 7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디지털배움터 '에듀버스' 교육을 제공했다.

'에듀버스'는 디지털 기자재를 탑재한 버스로 거동이 불편하거나 시간·지역 등 문제로 교육이 힘든 대상에게 직접 찾아가 디지털 교육을 제공한다. 수원문학인의 집에서 열린 이번 에듀버스 교육에서는 생업으로 바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챗GPT, 스마트폰 활용방법 등을 교육했다.

수원시는 에듀버스 외에도 2023년 4월부터 시민을 대상으로 수요에 맞춘 디지털 역량강화 교육 '디지털배움터'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현재 디지털 배움터는 시·구청,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복지관 등 정보화교육장을 활용해 38개소에서 운영 중이다. 일상생활에 필요한 디지털교



교육을 주요과정으로 기초, 생활, 심화, 특별 4과정의 교육을 제공한다. 수원시는 지난 4월부터 10월 31일까지 온·오프라인 교육과정 4300여 개를 운영하며 1만 9087명에게 교육을 제공했다. 올해 말까지 총 2만

5000명을 교육할 계획이다.

또 수원시가족여성회관 1층 커뮤니티실에 디지털 체험존을 설치해 일상 속 다양한 디지털 기술과 기기를 시민들이 직·간접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공간을 마련, 1000여명에게 교육·체험 기회를 제공했다.

이번 에듀버스 교육을 받은 한 소상공인은 "챗GPT 이름만 들어도 어려워 보였는데 직접 체험해보니 생각보다 간편하고 쉬웠다"며 "일상생활에 유용하게 쓸 수 있을 것 같다"고 밝혔다.

수원시 관계자는 "시민 누구나 디지털 생활이 일상화되고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다양한 교육 및 체험프로그램을 제공하겠다"며 "디지털 역량 강화 지원 체계 마련을 위해 끊임없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김범상/기자

고양특례시 수도계량기 동파 방지 대책 실시

고양특례시가 수돗물 겨울철 동파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12월부터 내년 3월까지 '2023~2024 동절기 수도계량기 동파 방지 대책'을 실시한다.

우선 수도계량기 동파를 예방하기 위해 계량기 동파에 취약한 가정을 조사해 보온재를 배부할 예정이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시민들에게 보온재를 무료로 배부하고 시민들이 올바른 수도계량기 관리법을 숙지할 수 있도록 각 구청과 동 행정복지센터에 동파 예방 홍보물을 배포할 예정이다.

또한 상하수도사업소는 수도계량기 동파 사고에 대비하여 즉시 언 수도를 녹이고 깨진 계량기를 교체할 수 있도록 24시간 상황실을 운영할 계획이다. 시는 신속 대응팀을 편성하고 상수도 대행업체와 협조하여 동파 신고 접수 시 신속하게 동파 사고에 대응할 예정이라고 한다.

시 관계자는 "올해도 수도계량기 동파 제로(0)를 목표로 올 겨울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앞장 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영기/기자

성남창업센터(정글ON), 아시아창업보육협회(AABI) 창업보육센터 상 수상

아시아창업보육협회 19개 회원국 최우수 추천 기관 간 경합을 통해 최종 선정

성남시와 성남산업진흥원이 운영하는 성남창업센터(정글ON)는 10월 30일부터 11월 1일, 3일간 태국 방콕에서 열린 2023 아시아창업보육협회(Asian Association of Business Incubation) 총회 및 스타트업 컨퍼런스에 초청받아, 지난 10월 31일 본 행사 일환인 시상식에서 '올해의 창업보육센터상'을 수여 받았다.

AABI는 아태지역의 스타트업 협력 체계 구축을 위한 다자간 보육 네트워크로서 중국, 일본, 싱가포르, 호주 등 19개국의 회원국을 보유하고 있다. 현재 중국 상해 기술 혁신센터에 사무국을 두고 있는 협회는, 매년 각 회원국 중 우수한 성과 및 공로가 있는 창업지원 기관을 추천받아 그 중 최우수 기관을 선정한다. 올해는 한국 대표로 추천된 성남창업센터와 인도의 칼링가 산업기술대학교 창업보육센터

(KIIT TECHNOLOGY BUSINESS INCUBATOR) 두 곳이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성남창업센터(정글ON)는 성남산업진흥원이 2017년 전국 최초로 기초 지자체 주도하에 설립한 창업센터이다.

현재 성남시 내 지역별 7개의 센터를 운영 중이며 이 중 2개 센터(킨스타워, 판교2밸리 창업지원주택)는 2021년에 7월, 중소벤처기업부 지정 창업보육센터로 인정받아 스타트업 지원 인프라 및 자원을 더욱 확대하는 계기가 됐다.

성남창업센터의 우수성은 뛰어난 입지와 시설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교육 및 멘토링부터 우수기업 발굴 경연대회, 투자유치, 글로벌 진출, 대기업과의 협업을 통한 오픈이노베이션까지 단계별 성장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있다. 2017년 개소 이래 226개의 스타트



업을 보육했고 입주기간 중 441억원의 매출, 245명의 신규 고용 창출 성과를 달성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했다. 성남산업진흥원은 민간 투자연계 등 다양한 기업지원 프로그램과 전문성을 갖춘 대내외 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최첨단 기술 스타트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더욱 키워나갈 예정이다. 한영기/기자

화성시, 2023년도 성과관리 역량 강화 교육 실시



화성시가 7일 시청 대강당에서 소속 공직자를 대상으로 성과관리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교육은 민선8기 비전 실현을 위해 직원들의 성과관리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성과중심의 조직문화를 확립하고자 마련된 자리로, 133개 전 부서의 성과관리 지표 담당자, 신규 공직자 등 300여 명이 참여했다.

임현준 한국미래정책연구원 부원장이 강사를 맡아, '성과관리란 무엇인가'를 주제로 성과관리의 기본 개념부터 전략목표 달성을 위한 성과 지표 설정방법 등 성과관리를 위한 실효성 있는 내용을 다뤄 직원들의

성과관리 역량 향상을 도왔다. 시는 이번 교육을 계기로 민선8기 시정 목표를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한 핵심 성과지표를 설정하고 조직의 성과관리 역량을 강화해 100만 특례시 출범을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유은호 정책기획과장은 "이번 교육을 통해 성과관리제도가 화성시 시정 발전의 원동력이 될 수 있도록 보다 효율적인 성과관리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시정 성과 창출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양시현/기자

안양시, 전세사기 예방·코딩 등 청년역량강화 교육

11월 8일·15일·22일 성결대서 진행...홈페이지 참여 접수

'청년특별도시' 안양시가 청년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 임대차 관련 법률 상식·자기소개서 작성 및 면접 요령·코딩 등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을 마련했다.

시는 이달 8일, 15일, 22일 등 3회에 걸쳐 '청년강사와 함께하는 청년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성결대 재림관에서 실시한다. 7일 밝혔다.

특히 이번 프로그램은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추기 위해 강사를 청년으로 구성했으며, 안양시에 거주·재학·재직 중인 19세부터 39세의 청년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참가비는 무료다.

우선 오는 8일에는 유튜브 현창윤 변호사를 강사로 초청해 '부동산 계약'에 관한 강의를 진행한다. 최근 피해가 커지고 있는 전세 사기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 어려운 부동산 용어 설명 및 거래 매뉴얼 등 임대차 관련 법률 상식에 대해 설명할 예정이다. 15일에는 유튜브 조예림 강사가 취업

준비생에서부터 입사·퇴사·창업에 이르는 다양한 경험을 공유할 예정이며, 합격률 향상을 위한 자소서 작성법 및 면접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22일에는 '비전공자를 위한 첫 코딩 챌린지' 책자를 출간한 바 있는 유튜브 임효성 작가가 쉽고 자세한 코딩 강의와 실습이 진행된다.

참여 신청은 안양청년광장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 이번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재신청을 원하는 청년을 위해 12월 중 안양청년광장 홈페이지에 온라인으로 영상을 게시할 예정이다.

시는 앞으로도 청년의 주거·취업 및 창업 등에 도움이 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예정이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청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해 자신의 강점을 파악하고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도 청년들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발굴하고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신우용/기자

의정부시 이동지원센터, '행복드림콜' 2023년 제8회 교통약자와 가족들의 행복한 나들이

의정부시시설관리공단 이동지원센터는 지난 11월 4일, 의정부시 교통약자들에게 제공하는 여행지원서비스인 "행복드림콜"을 올해 여덟 번째로 실시했다. 교통약자들에게 행복한 추억과 감동을 선사하며, 이번 '행복드림콜'에 참여한 고객 및 동반 보호자에게는 여행에 필요한 행복콜 차량, 유료도로 통행료, 조식, 간식, 기념액자 등을 제공하

며 뜻깊은 시간이 됐다. 행복드림콜 주인공으로 선정된 이**씨와 그 지인은 행복콜 차량의 지원으로 화성시에 위치한 '제부도'로 여행을 떠났다. 제부도의 해상 케이블카를 한번쯤은 꼭 이용해보고 싶었던 바람을 오늘에서 드디어 이를 수 있게 됐다며 실례과 기대를 가지며 제부도로 출발했고, 아름다운 풍

경과 생생하게 느껴지는 바닷바람의 느낌은 절대 잊을수 없는 추억이 됐고, 날씨도 맑고 깨끗하여 그 기분을 더했다. "평소 신체적 불편함으로 먼 곳의 여행을 하려면 많은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덕분에 이런 기회가 생겨 생각만하던 일들을 경험하며 정말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라고 감사의 말씀을 전하고, "편안하고 좋은 여행

을 오랜만에 만끽하는 기분이다 라는 소감을 표현했다.

김창호 본부장은 "항상 모든 의정부시 교통약자가 즐겁고 자유로운 여행의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하며, 특별교통수단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적극적인 맞춤형 사업을 발굴하고 추진하겠다"라고 했다. 최만식/기자



이민근 안산시장, 반월동 주민 건의 사항 로드체킹... 현장불편 수렴



안산시는 이민근 시장이 지난 6일 상록구 반월동을 방문해 주민 건의사항과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시민과 함께, 가치토크'를 실시하고 지역 로드체킹을 진행했다고 7일 밝혔다.

'시민과 함께, 가치 토크'는 시장이 직접 현장을 찾아 주민과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불편 및 건의 사항을 듣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관내 곳곳에서 진행하고 있다.

이날 이민근 시장은 복개천 주차장 등 반월동 지역 5개소를 찾아 불법 주차차 및 소방도로 건설 등 주민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현장을 점검 확인했다. 특히 ▲하천변 주차장 장기 주차로 인한 이용 불편 ▲하천부지를 이용한 자전

거도로 설치 ▲비늘길길 소방도로 건설 ▲굴다리 우선 시 배수 개선 등 주민 불편사항 및 건의사항에 대한 추진계획 등을 공유하며 다양한 방안을 논의했다.

이민근 안산시장은 "많은 사람의 의견이 모여 큰 힘을 발휘하는 협업의 힘을 믿는다"며 "현장에서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함께 해결방안을 찾는 소통 시정 운영으로 행정의 신뢰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말했다.

이 시장은 그러면서 "현장 방문 과정에서 언급된 건의 및 불편 사항과 아이디어를 정책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꼼꼼히 챙겨 시민들의 행정 만족도를 높여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최정부/기자

용인특례시, 상습정체 양지면 일대 도로교통 종합대책 마련해 시행 방침

장기적 차원 국도 확장, 대체 우회도로 신설 등 간선도로 확충 주력

용인특례시는 주요 도로의 상습 정체가 이어지는 처인구 양지면 일대 교통을 보다 원활하게 하기 위해 장단기 도로교통 종합대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양지면은 영동고속도로 양지IC와 국도 42호선과 국도 17호선 등이 교차하는 교통 요지로 최근 주변 지역이 급속도로 개발되면서 평일 출퇴근 시간은 물론이고 주말까지 주요 도로가 많이 막혀 시민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는 지역이다.

시는 원상면 용인반도체클러스터나 이동·남사읍의 첨단 시스템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등 대규모 사업 등을 반영한 장단기 도로교통 대책을 수립해 일대 교통난을 근본적으로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우선 중장기적으로 국도 42호선과 17호선 등 간선도로를 확장하거나 우회도로를 개설하는 등 대규모 개발에 따른 교통수요 발생에 체계적으로 대응할 방침이다.

국도 17호선 확장의 경우 시가 제5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한 만큼 평장사거리~양지IC 사거리 3.1km 구간은 6차선으로 확장되게 된다. 서울지방국토관리청은 이에 대한 설계를 진행 중이다.

시는 또 국도 42호선 대체 우회도로의 남동~양지 간 신설, 국도 17호선 양지~광주 도척 간 신설, 국지도 84호선 이동~원삼 간 신설 등의 사업은 제



6차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

시는 현재 진행 중인 '용인시 도로 건설·관리계획 및 농어촌도로 기본(정비)계획(2026~2030)' 용역을 통해 양지면에서 시의 주요 경제 거점까지 이어지는 최적의 노선안을 마련해 '2040 용인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계획이다.

또 적정량 이상의 차량이 몰리면 병목현상이 발생, 주변 국도의 체증까지 유발하는 영동고속도로 용인IC~양지IC 구간에 대해서 도로공사와 협의

해 확장 등 장단기 해결책을 마련할 방침이다. 시는 지난 6월에도 도로공사에 이 구간 차로를 현행 8차선에서 10차선으로 확장해 주도록 요구한 바 있다.

시는 양지리나 남곡리 등 양지면 내의 정체를 해소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도로도 지속해서 확충해 나갈 계획이다.

이 가운데 대규모 아파트 단지가 들어설 예정인 남곡리 일원엔 국도 42호선에서 남곡천까지 길이 960m의 왕복 4차로(중1-7호) 도로를 내년 말 준공을 목표로 공사를 하고 있다. 이와 함께 국도 42호선 양지2교 부근에서 남곡리로 진입하는 길이 343m의 4차

로 도로를 남곡2지구 사업자와 협의해 신설키로 했다. 이 길과 교차로를 마주하며 양지제일교회까지 이어지는 길은 길이 205m의 4차로 도로도 신설할 방침이다.

시는 양지리 일대 마을 안 도로혼잡 해소방안도 마련했다.

양지농협에서 양지면 행정복지센터까지 400m 구간은 현재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키로 결정해 현재 설계를 진행하고 있다. 이 도로는 이미 개설된 양지농협~양지교회 간 4차로 220m 도로와 연결돼 출퇴근 시간 정체 해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양지사거리~양지리조트 간 약 1.12km 구간 2차로를 4차로로 확장하기 위해 현재 토지 보상을 하고 있다.

시는 지난달 양지사거리에서 양지IC 방향의 정체를 해소하기 위해 좌회전 차로 확충, 좌회전 신호 시간 확대 등의 단기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이상일 용인특례시장은 "글로벌 반도체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대형 프로젝트가 진행됨에 따라 용인특례시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도시로 자리매김했다"며 "이에 따라 교통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을 선제적으로 고려해 종합적인 교통대책을 마련하는 등 교통인프라 확충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삼/기자

광주시 관내 기업, 이어지는 이웃사랑 실천



광주시의 어려운 이웃을 위한 성금과 성품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

광주시 차세대 경영인협회 임철욱 회장 일행은 7일 광주시청을 방문, 백미 123포(10kg·400만원 상당)를 기탁했다.

임 회장은 "광주시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기가 전달됐으면 한다"며 기탁 소감을 밝혔다. 기탁받은 백미는 시 무한돌봄센터, 드림스타트센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 어려운 이웃에게 배분했다.

또한, 같은 날 사회적경제 나눔장터 참여기업인 (사)광주시사회적경제협회 박성수 회장, 남종면나루터협동조합 김

웅덕 이사장, 경안마을협동조합 윤용해 이사, (주)맥스푸드 최선웅 대표가 함께 시청을 찾아 성금 180만원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한 성금은 지난 10월 13일부터 이를 동안 개최된 '2023년 제2회 광주시 사회적경제 나눔장터'에 참여한 사회적경제 기업들이 수익금 중 일부를 이웃돕기 성금으로 기탁해 그 의미를 더했다.

이에 대해 방세환 시장은 "힘든 상황에서도 광주시 관내 기업들이 정성을 모아 어려운 이웃을 도와주셔서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김병삼/기자

광명시, 4년의 민관협치 발자취 담은 백서 발간

2019~2023년에 걸쳐 광명시 민관협치 활성화 발자취 오롯이 담아내

요한 일"이라며 "앞으로도 선진적인 협치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 시민과 함께 노력을 지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백서는 모두 5개의 장으로 구성돼 있다. 우선 첫 번째 장에서는 조례제정 이후 진행된 협치 활성화 기본계획, 시정 협치협의회, 협치실행위원회, 공론화위원회 등 협치 조직과 체계 등을 통해 광명시 협치의 목표와 방향을 설명한다.

두 번째 장에서는 2019년 하반기부터 시가 추진해 온 협치 역량강화 교육, 시민참여커뮤니티 운영, 협치 토론회 등 주요 협치사업을 소개한다.

세 번째 장에는 민주시민교육네트워크 구성, 코로나19 복지사각지대 발굴, 환경교육도시 추진, 통학로 안전 개선, 구로차량기차 광명 이전 백지화, 주민세 마을사업, 청년속의예산 시행 등 협치를 통해 함께 이뤄낸 구체적인 사업 성과와 사례를 보여준다.

네 번째 장에는 민관협치 발전에 함께 해온 시민들의 인터뷰를 통해 민관협치



로 성장한 광명시의 모습을 조명하고 더 나은 광명을 위한 제안들을 함께 실었다.

마지막 다섯째 장에는 지난 6월 열린 '광명시 민관협치 평가 좌담회' 내용을 통해 광명시 협치의 현재와 미래를 가늠할 수 있도록 했다.

시는 11월 중 백서 500부를 경기도와 광명시 관내 협치 부서와 관계기관, 동 행정복지센터, 도서관, 복지관 등에 배부해 시민들과 관계자들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윤용민/기자

하남시, '하남시 비지정문화재의 역사적 가치와 활용방안' 학술회의 개최

하남시가 '하남시 비지정문화재의 역사적 가치와 활용방안'을 주제로 주요 비지정문화재 조사연구 학술회의를 10일 13시 하남시청 본관 대회의실에서 개최한다.

비지정문화재는 문화재보호법 또는 사도의 조례에 의해 지정되지 않은 문화재 중 지속적인 보존과 보호가 필요한 문화재를 말하며, 보존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지만 미래 역사문화자원으로서 활용가능성이 무궁무진해 적극적인 보호·연구 노력이 필요하다.

7일 하남시에 따르면 이번 학술회의는 하남시 비지정문화재의 보존방안 마련 및 신규지정 추진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를 목표로 지난 2월 착수했던 '하남시 비지정문화재 지정까지 조사 연구용역'의 일환으로, 하남시 주요 비지정문화재의 역사적·학술적 가치를 조명하고 향후 활용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기획됐다.

학술회의는 1부 기초강연 '역사지리적 관점에서 본 하남시 비지정문화재의 의미와 가치'(정요근 서울대학교 교수)를 시작

으로, 주제발표 ▲하남 감일지구 고분군의 역사적 가치와 활용을 위한 과제(김낙중 전북대학교 교수) ▲하남 천왕사지의 고고·역사적 가치와 활용을 위한 과제(최태선 중앙상경대학교 교수) ▲하남시 교산동 건물지의 조사성과와 역사적 가치 및 활용 방안(황보경 세종대학교박물관 학예주임)으로 각 대상 문화재에 대하여 조명하고 ▲하남시 비지정문화유산의 보호 및 활용방안 검토(김재홍 한국문화유산연구소) 발표 순서로 진행된다.

또한 2부는 최종택 고려대학교 교수를 좌장으로, 이남규 한신대학교 명예교수, 심광주 전 토지주택박물관장(경상남도 문화재위원), 이한용 전곡선사박물관장(경기도 기념물분과 문화재위원), 홍보식 공주대학교 교수(문화재청 사적분과 문화재위원), 양시는 충북대학교 교수(문화재청 세계유산분과 문화재위원)가 참여해 하남시 주요 비지정문화재의 미래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하는 종합토론이 진행된다.

이현재 하남시장은 "이번 학술회의는 향

후 하남시 주요 비지정문화재의 보존·활용방안 마련을 위한 학문적 토대를 마련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 내 주요 비지정문화재에 대한 연구 활성화 및 안정적 관리체계 정비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김병삼/기자



김경희 이천시장, 현장방문을 통한 기업인과의 소통 확대



김경희 이천시장은 7일 이천시 모가면에 위치한 (주)에버헬스케어농업회사법인과 실성면에 위치한 농업회사법인(주)채담을 방문해 현장 관계자를 격려하고 기업애로를 청취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날 김 시장이 방문한 (주)에버헬스케어농업회사법인은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여 소비자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자'

라는 기업정신을 갖고 곡물제품, 특히 이천쌀을 활용한 누룽지 제품을 생산하는 식품공장이며, 농업회사법인(주)채담은 계란 가공에 토달 솔루션을 갖추고 시대의 흐름에 맞는 다양한 계란 가공품을 생산하는 업체다.

이번 방문에서 (주)에버헬스케어농업회사법인은 신규 공장 신축에 따른 지원금 요

청 및 이천쌀 누룽지 제품에 "헬쌀" 문구 사용 등에 대한 건의를 하여 현장에서 직접 해결방안을 찾을 수 있었으며, 농업회사법인(주)채담에서도 회사관계자들과 생산시설을 함께 둘러보고 해외수출 등을 논의하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한편, 이천시는 민선8기 들어 수도권정비계획법 등에 따른 중첩 규제에 의해 기업활동에 많은 제약은 받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애로 해결을 위한 "현장기동반" 운영, 각종 자금지원 제도 운영 및 소규모 기업환경개선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기업들로부터 좋은 호응을 얻고 있으며, 그 결과 최근 경기도 "기업SOS평가"에서도 대상을 수상하는 등의 큰 성과를 거두고 있다.

김 시장은 "수십 년간 이천의 지역경제 발전을 이끌었던 근간이 기업임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며, "앞으로도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다양한 지원방안 모색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병삼/기자

2024년도 구례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교육생 모집

인생 제2막의 시작, 지금 구례군에서 시작하세요



전남 구례군은 올해 11월 20일부터 내년 1월 26일까지 2024년도 구례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 8기 교육생을 모집한다고 밝혔다.

구례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는 농업창업에 희망하는 도시민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돕기 위한 교육시설이다.

구례군 체류형농업창업지원센터는 숙박시설(원룸형 30, 단독주택형 5), 교육장, 영농실습 포장 등을 완비하고 있으며, 3월부터 12월까지 10개월간 체류 공간과 영농교육 과정을 제공하고 있다.

교육 시간은 연간 약 120시간이며, 교육 내용은 ▲농기계 사용 ▲감자, 고구마 재배 ▲옥수수, 고추 재배 등이다. 새내기 귀농·귀촌인의 현장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 이론 교육과 실습 교육을 병행한다.

교육 신청 대상은 모집공고일 이전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농촌(읍·면)지역을 제외한 도시지역(동)에 1년 이상 체류 중인 귀농귀촌 희망자이다. 다만, 근무지가 농어촌 지역이고, 농업 이외의 산업 분야에 종사한 경우에는 지역 거주제한을 두지 않는다.

김성현/기자

순천시, 11일 순천대학로 ‘우당탕탕 히어로 대소동’ 열려

포스터 속 실루엣 5명의 히어로를 찾아라 서프라이즈 이벤트 진행



순천시는 오는 11일 오후 3시부터 순천대학교 열린광장과 순천 대학로 일대에서 hello! 순천 대학로 '우당탕탕 히어로 대소동'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축제는 청년들과 함께 전 세대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캐릭터를 주제로 주무대 스테이지, 체험참여존, 문화감상존, 푸드존을 구성해 다채롭게 진행할 예정이다.

주무대에서는 지구방위대 에메트사운드 공연과 댄스챌린지, 헬크와 한판승부, 마법사 퀴즈대회, 코스튬 쇼, 버스킹 등이 열리며, 문화감상존에서는 달팽이 응원존, 캠퍼스, 풍선&마술버스킹을, 체험참여존에서는 히어로 분장&의상대여, 어벤져스 댄스배틀, 해리포터 통창회, 밀리터리 서든어택, 7080주막 등이 펼쳐진다.

‘실루엣 5명의 히어로를 찾아라 이벤트’와 전 세대 참여 유도를 위해 ‘코스튬 플레이타임(가족 티&캐릭터 복장 참여)’도 진행한다.

특히, 이날 지구방위대 챌린지(2,900만부), 아디아디챌린지(3,000만부) 등으로 유명한 에메트사운드의 특별공연, 노란규 순천시장과 청년들이 함께하는 유행 댄스챌린지를 진행해 행사장의 열기를 더욱 북돋을 예정이다.

순천시 나옥현 청년정책과장은 “캐릭터를 주제로 청년들의 중심지 대학로에서 청년들이 만들어 가는 미니 디즈니 마을을 상상하며 구상하게 됐다”라며 “우리 시가 앞으로 애니메이션 산업에 주력하는 만큼 그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청년과 함께 전세대가 공감할 수 있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또한, 사전 참여 행사로 포스터 속

이승준/기자

전남도,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지정 순항

제2차 민관협의회...계통연계·이익 공유 방안 등 논의

전라남도는 지난 10월 31일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제1차 민관협의회를 열어 사업계획 전부를 공유한 데 이어 7일 도청 재난종합상황실에서 제2차 민관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집적화단지 신청에 속도를 내고 있다.

이번 민관협의회는 주민수용성 확보의 중요한 사안이자 집적화단지 지정여부의 관건인 전력계통연계와 주민 이익공유 방안 등에 대해 위원들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논의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전력계통연계 방안에 대해서는 해상풍력 발전단지 송전망 접속 개념, 한전 선(先) 투자 예정인 공동접속설비 추진 배경 및 절차, 송전선로 구축 관련 주요 이슈, 해결 방안 등에 대해 한전 관계자가 직접 설명하고 의견을 청취했다.

특히 지역 주민과 민관협의회 위원이 관심을 갖는 이익공유 방안에 대해서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 수익금 전량, 수익금 운영체계, 구체적 수익금 활용계획 등을 설명하고 해당 사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했다.

전남도가 예측하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추가 가치치 수익은 계획된 단지가 조성 완료되는 시기인 2029년부터 단지별로 순차적으로 발생해 연 최대 600억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다.

전남도는 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수익금 활용계획을 갈등기, 성장기, 안정기 등 단계별로 세부 활용계획을 수립하고 지역 주민과 농업인, 송전선로 주변지역 주민 등 대상을 세분화해 민관협의회와 주민설명회를 통해 이해관계자와 지속적으로 소통, 주민수용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강상구 전남도 에너지산업국장은 “위원들이 관심 갖는 계통연계와 이익공유 방안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구체적인 방안을 함께 모색하는 뜻깊은 자리였다”며 “앞으로도 전남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조성과 관련해 주민과 연관된 중요사항은 소통 창구인 민관협의회를 통해 지역 주민이 공감하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전남도는 신안 해상풍력 집적화단지 사업계획(안)에 대해 지난 3일 전남도·신안군 누리집에 공고했다. 20일까지

주민설명회 개최 등 의견 청취 절차를 거쳐 제3차 민관협의회에 최종안을 상정·의결, 12월 중 산업부에 집적화단지 지정 신청을 목표로 하고 있다.

박종배/기자

김영록 전남도지사, “전국체전 성공 개최 목포...서남권 교통요충지로”

목포시, 도민과의 대화...해수취수시설 재정지원 등 요청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7일 “목포는 김대중 평화주의를 낳은 전라도 정신의 본고장이자, 목포역·목포항·무안국제공항을 품은 전남 서남권의 교통요충지”라며 “목포 르네상스 시대를 전남도가 힘껏 뒷받침하겠다”고 밝혔다.

김영록 지사가 이날 목포 신안비치호텔에서 주재한 목포 ‘도민과의 대화’에는 박홍률 목포시장, 목포시의회 문차복 의장, 김귀선 부의장, 전남도의회 정경선 부의장, 최선국·조옥현·박문욱 도의원, 박의승 목포소방서장, 정대성 교육지원청교육장, 이항숙 전남서부보훈지청장, 조성재 목포 노인회장 등 200여 명이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여했다.

이 자리에서 김영록 지사는 “제104회 전국체전 성공 개최에 22만 목포시민이 힘을 모아준 데 각별히 감사하다”며 ““글로벌 관광·체육·문화 도시”로서 전남도와 목포시의 역량과 위상을 국내외에 유감없이 보여줬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제 박홍률 목포시장은 “이번 전국체전으로 목포의 식당·숙박업소에 활기가 넘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보탬이



됐다”며 “국민 화합체전, 희망체전, 안전체전으로 치르기 위한 전남도의 노심초사 결과다”고 화답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은 “향후 광주·영암·목포 아우토반 고속도로 건설, 목포 구도심과 남악 오룡 신도시를 잇는 차세대 교통수단인 ‘전남형 트램’ 역시 서

남권의 획기적 발전의 큰 축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목포시는 이날 대양산단 마른길 공장 가동에 사용되는 해수취수시설 1호기의 취수구의 위치가 오염에 노출돼 3호기 신설이 필요하며 5억 원의 재정지원을 요청했다.

김영록 지사는 “2024년까지 김 수출 3억 달러 달성을 위해 혁신적인 김산업 기반 조성사업을 지원하고 있다”며 적극 지원을 약속했다.

온·오프라인을 통해 참석한 도민들의 현장 건의도 이어졌다. 노창균 목포형 대중교통시스템 구축 시민공론화위원장은 시내버스 공영화·트램 등 ‘목포의 신(新) 대중교통 수단’에 대한 신속 추진을 건의했다.

노 위원장은 “시내버스의 잦은 운행 중단과 사업자 경영 포기 등 버스 파행에 대한 시민들의 우려와 불편이 매우 높은 상황이다”며 “시내버스 공영화에 대한 국비 지원 확대를 건의하고, 트램·대불산단대교(삼학대교) 등 각종 사업의 빠른 추진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김영록 지사는 “전남도는 목포와 함께 버스공영제 도입을 위한 중앙 정부의 재정 지원이 포함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개정을 강력 요청하고 있다”며 “전남 서남권 SOC 신 프로젝트의 국가계획 반영을 위해 국회와 중앙부처에 지속 건의하겠다”고 답변했다.

이외에도 도민들은 ▲목포시청소년수련원 교육실 보수(4억 원) ▲소형어선 인양기 설치사업 예산(4억 원) 반영 ▲어업인 편의시설 지원사업(8천만 원) ▲목포시청소년문화센터 노후설비 보수(8억 원) ▲서남권 출산·양육 거점 도시 조성을 위한 ‘아이맘 힐링센터’ 건립 ▲목포대학교 의과대학 및 대학병원 유치 등을 제안했다.

박종배/기자

보성군, 제19회 별교꼬막축제 꼬막 시식 체험비 기탁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별교 분회 1백만 원 기부

보성군은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별교분회’가 1백만 원을 별교읍에 기탁했다고 밝혔다.

기탁된 기부금은 지난 27일부터 29일까지 3일간 열린 ‘제19회 별교꼬막축제’에서 별교 분회 회원들이 ‘꼬막 시식 체험행사’ 부스를 운영하며 얻은 수익금으로 전남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연계해 별교읍 내 소외이웃에게 전달할 예정이다.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김조애 별교분회장은 “꼬막 값이 올라 일부 체험비를 받고 진행했지만 ‘꼬막은 역시 별교요, 역시 참꼬막이 최고’라는 찬사를 받아 꼬막 본고장 출신으로 자부심이 느껴졌

다.”라며 “회원들이 체험 부스를 운영하며 얻은 수익금이 소외계층을 위해 쓰였으면 하는 의견들을 모아 기탁을 결정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선남규 별교읍장은 “꼬막 시식 체험행사를 운영해 주셔서 감사하며, 체험 수익금 또한 취약계층을 위해 기탁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라며 “도움이 필요한 곳에 잘 쓰이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고향을 생각하는 주부들의 모임 별교분회는 꼬막축제 제1회부터 19회까지 개최마다 별교꼬막을 삶아 관광객에 나눠주는 행사는 진행했으며 매년 김장김치 나눔 행사 등 꾸준한 봉사활동을 이

어오고 있다.

최원영/기자



남원시, 찾아가는 보건복지 민간협력 워크숍 실시

민간협력을 통한 지역복지 증진 위해

남원시는 지난 7일 남원 스위트호텔에서 읍면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 및 관계 공무원 등 약 150명이 참석한 가운데 ‘찾아가는 보건복지 민간협력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은 2023년 동안 읍·면·동에서 추진한 찾아가는 보건복지 사업 성과와 특화사업을 소개하고, 사업

추진에 기여한 유공자 표창, 민간협력 방안 특강, 통합사례관리 우수사례 발표 등 읍·면·동 간의 정보 공유와 담당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자리였다.

또한 권덕철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특강 강사로 초청하여 지역사회 통합지원을 통한 지역사회 보호 체계 강화와 복지사각지대 대상자 발

굴 및 민간협력 방안을 모색하는 시간도 가졌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한 해 동안 지역의 복지 향상을 위해 노력한 분들을 치하하며, 앞으로도 민과 관이 함께 협력하여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장 복지를 강화하고 복지사각지대가 발생하지 않도록 남원형 통합돌봄 등 복지안전망 구축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전국 전북도민 5000여명 국회의사당 앞에 모여 새만금예산 완전복원을 위한 대규모 상경대회 개최

새만금 예산 복원을 요구하는 전북인 5000여명의 함성이 국회의사당에 울려 퍼졌다.



의 부당성을 피력하며 새만금예산 복원없이 예산안 통과가 없다는 의지를 재확인했고, 강훈식 예결위 간사도 참석하여 국가사업법 위반, 예산불균형, 지역균형발전 역행을 문제 삼으며 새만금 예산을 반드시 지켜내겠다고 약속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대다수의 전북도

민은 “새만금 예산 정상화로 전북과 새만금의 미래를 살려내고, 전북인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하는 절박한 심정”으로 참석했다고 했다.

이날 행사는 새만금 국가사업 정상화를 위한 전북인 비상대책회의(상임대표: 윤석정, 서종표, 윤방섭, 최일, 박숙영, 박전산, 소재호), 전라북도의회 [의장 국주영은], 전국호남향우회 총연합회 [회장 최순모], 경기·인천 전북도민총연합회 [회장 임영배], (가칭)새만금정상화 재경전북인 14개시·군 비상회의 [대표 박종길, 재경도민회 신·구회장협의회] 이상 5개 단체가 공동주최했으며,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도당위원장과 도내 국회의원, 김관영도지사, 국주영은도의장, 김원기전국회의장을 비롯한 지역원로 등이 함께 하며 새만금사업 정상화에 힘을 실어 주었다.

함평군4-H연합회, 깨끗한 함평만들기 플로깅 실시!

2023 국향대전 마무리를 기념하며 건강도 챙기고 깨끗한 함평도 만들고!



전남 함평군4-H연합회가 지난 6일 깨끗한 함평을 만들기 위한 플로깅 행사를 실시했다.

올해로 2회째를 맞는 플로깅 행사는 건강과 환경을 지키기 위해 조깅하며 쓰레기를 줍는 활동으로 청년 4-H회원 및 관계자 30명이 참여했다.

회원들은 2023 대한민국 국향대전 축제장 일대를 다같이 조깅하며 버려진 쓰레기를 수거해 생활 속 환경보호를 실천하고 공동체 의식을 제고했다.

김승순 회장은 “올해 진행한 두 번의

플로깅 행사가 회원들을 비롯한 군민들에게 환경보호 실천 인식 개선에 많은 도움이 됐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정기적인 플로깅 행사와 지역 내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에 앞장서겠다”고 전했다. 이상의 함평군수는 “올해 2번의 플로깅 활동에 어린이와 청년들 등 많은 군민들의 관심과 참여도가 높아 감사하다”며 “청년 4-H회원들이 실력과 인성을 겸비할 수 있도록 군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영진/기자

나주삼색놀이, 마당극 이어 8일 극장판 공연으로 선봬

나주시립국악단 정기연주회 나주문예회관에서 오후 7시 30분부터



나주지역 고유의 민속놀이인 '나주삼색놀이'가 마당극에 이어 극장판으로 각색돼 관객들과 만난다.

전라남도 나주시는 8일 오후 7시 30분부터 나주문예회관에서 나주시립국악단 특별공연 '삼색유산놀이'를

개최한다고 7일 밝혔다.

삼색유산놀이는 나주읍성에 살았던 부녀자들을 중심으로 양반, 상민, 천민까지 세 계층이 신분을 가리지 않고 하나의 집단으로 모여 놀았던 민속놀이이자 여성들의 대표 축제였다.

농번기 시작 전, 봄이 되면 산으로 봄놀이를 가는데 이를 두고 흔히 '화전놀이', '산놀이' 또는 '유산'(遊山)이라고 불렀다. 남자들의 경우 시회를 열고 여자들은 강강술래와 민요, 타령을 부르며 하루를 즐겼다고 전해진다.

이번 공연은 전문 작가들의 손길을 거쳐 디자인된 화려한 영상, 조명과 함께 관객들의 큰 이해도를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안무와 연기 등이 기존 마당극에 비해 대폭 수정됐다.

지난 9월 나주목 향청에서 마당극으로 선보여졌던 나주삼색유산놀이 공연은 사라진 지역 문화유산의 현대적인 수용이라는 관점에서 지역민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공연을 관람한 전문가들은 극안에서 놀이의 원형이 훼손되지 않고 지역 내 다양한 향토민요가 복원돼 극의 콘텐트로 모두 활용되고 있다는 점에 호평을 아끼지 않았다.

총연출을 맡은 윤종호 시립국악단 예술감독은 “극 전체에서 느껴지는 밝은 분위기로 즐겁게 극을 즐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나주 고유의 문화유산을 지키는 주인공이라는 자긍심을 갖는 무대가 될 것”이라고 전했다.

공연은 8일 나주문예회관 대공연장에서 오후 7시 30분부터 진행된다. 관람료는 무료이며 당일 현장에서 티켓을 배부할 예정이다.

윤병태 나주시장은 “나주삼색유산놀이는 일반 촌락과는 구별되는 읍치사회 문화를 대변하는 나주만의 문화유산”이라며 “시민들의 문화예술 향유는 물론 지역을 대표하는 관광문화상품으로 활용될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영만/기자

강진군, 쌀값 안정 위해 총력

23년산 공공비축미 수매 시작...쌀값 안정 장기 대책 마련 분주

가을철 수확기를 맞아 공공비축미공매입이 본격 시작되며, 농촌지역이 모처럼 활기를 띠고 있다.

강진군에서는 지난 11월 1일부터 공공비축미 건조배매입을 시작해, 오는 11월 24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미국중합처리장 등 건조저장시설에서 매입하는 산물벼는 지난 9월 26일부터 이미 매입을 시작했다.

군의 올해 공공비축미 매입 계획량은 40kg들이 기준 204,658포대로, 지난해보다 9.6% 감소된 양이다. 이는 벼 재배면적 감축에 따른 생산량 감소

로 정부의 매입량이 전체적으로 줄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군에서는 올해 벼 재배면적 감축을 위한 전략작물직불제 등 시행의 영향으로 벼 재배면적이 200ha 정도 줄었고, 벼를 재배하지 않은 곳에는 논공, 조사로 등 대체작물이 재배됐다.

군에서 벼 대체작목으로 중점 지원했던 작물은 논공으로, 군 전역에서 176ha가 재배되어 현재 수확이 한창이다. 강진군에 따르면, 논공 재배 시 벼보다 1.5배 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강진원 군수는 지난 6일, 작천면 공공비축미공매입 현장에서 가진 농업인들과 대화에서 “올해에는 하반기 날씨가 좋아 지난해보다 벼 품위도 좋고, 시중 가격도 4천 원 정도 높아 다행”이라면서, “농촌경제연구원 등의 분석 결과를 보면 지난해에 비해 완화되기는 했지만 쌀 공급과잉 물량이 7만 7천 톤으로, 여전히 공급과잉 상태여서 지속적으로 쌀 생산량을 감축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강 군수는 또 “농업인이 마음 놓고 농사 지을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해 군



에서는 보다 경쟁력 있고 부가가치 높은 곡식으로 발 빠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추윤호/기자

화순군 “어르신 무료 결핵 검진 꼭 받으세요”

결핵, 12년 만에 증가 추세... 65세 이상 고령층 주기적인 결핵 검진 중요

화순군은 관내 어르신의 결핵 예방을 위해 무료 결핵 검진을 진행하고 있다. 결핵은 잊힌 병으로 인식되지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발생률 1위이며, 국내 법정 감염병 중 사망률 1위를 차지하는 질병이다.

최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올해 3분기까지 작년 같은 기간 대비 0.1% 증가, 65세 이상 노인의 경우 5.1% 증가로 65세 이상에서 뚜렷한 증가세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12년 만에이다.

이에 화순군 보건소는 매년 실시하고 있는 연 1회 무료 결핵 검진에 대한 홍보를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어르신들의 결핵 검진율을 높이고 결핵 검진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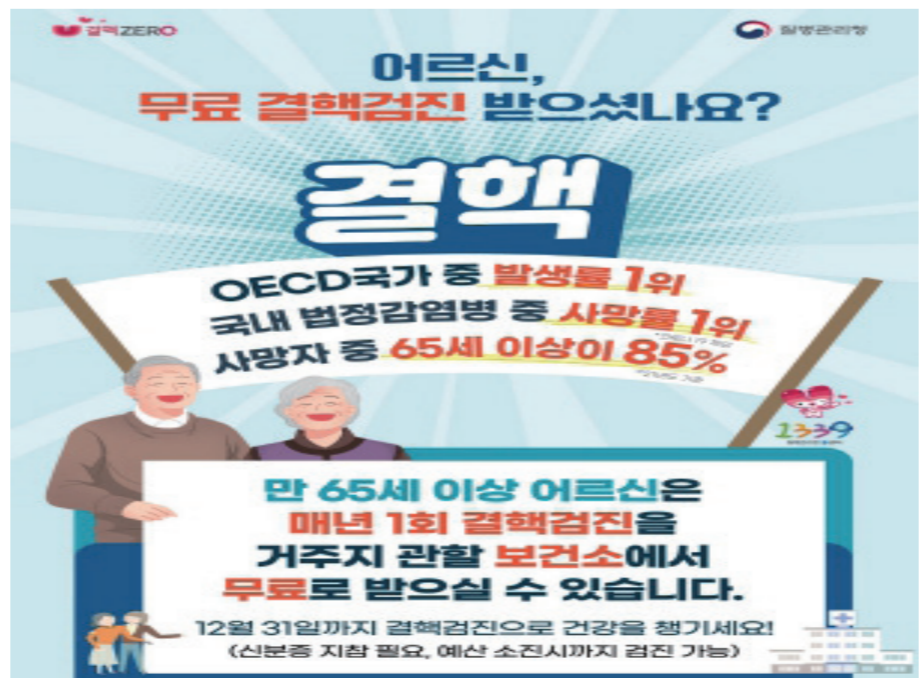
무료 결핵 검진 대상은 관내 거주하는 65세 이상 어르신으로 연 1회 무료 결핵 검진을 받을 수 있으며, 아직 검진받지 않은 대상자는 신분증 지참 후 화순군 보건소 결핵 실로 방문하면 된다.

박미라 보건소장은 “65세 이상 고령자들은 면역력이 약하여 결핵 발병률이

높기에 매년 정기적인 결핵 검진을 통한 예방 관리가 필요하다”라며 “화순군에 거주하는 어르신이 결핵 검진을 못 받는

일이 없도록 홍보 및 결핵 예방 사업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경호/기자



완도군은 지난 6일 서울 그랜드 하얏트 호텔에서 미국 항공우주청(NASA·나사) 관계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지난 4월, 미국 항공우주청에서 완도군 해조류 양식장 인공위성 사진 공개와 함께 해조류 양식장의 우수성을 언급해 화제가 되면서 완도산 해조류의 가치를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됐다.

특히 완도 해조류 양식장은 따뜻한 기온과 완만한 조수 차로 다시마와 김, 미역을 양식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친환경적인 양식 방법과 해조류의 효능에 대해서도 강조했다.

이에 군은 완도산 해조류 이미지 제고에 큰 영향을 준 미국 항공우주청에 감사패를 전달하게 됐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나사에서 완도의 해조류 양식 방법, 해조류의 가치에 대해 주목한 점은 매우 큰 의미가 있으며, 국내 최대 해조류 중심지인 우리군 해조류 산업 발전에 좋은 밑거름이 됐다”면서 감사 인사를 전했다.

미국 항공우주청 Meredith McKay 부국장은 “완도군의 친환경적 양식 방법은 매력적이며 특히 해조류는 미래 식량 및 바이오산업의 핵심이 될 것이다”면서 해조류의 가치에

대해 강조했다. 군은 감사패 전달과 함께 탄소 중립화 시대에 해조류가 탄소흡수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해조류 탄소 흡수원 인증을 위한 상호 공동 노력을 제안했다.

감사패를 전달한 후에는 완도군 홍보영상을 보여 친환경적인 해조류 양식 방법, 군 역점 사업인 해양치유산업과 해조류를 특화한 해양바이오산업에 대해 홍보했다.

한편 완도군은 해조류를 전국 대비 50%(약 87만 톤)를 생산하는 전국 제1의 수산군이며, 해저의 90% 이상이 정화 작용이 우수하고 영양염류를 생성하는 맥반석으로 형성돼 해조류 등 수산물의 맛과 영양이 뛰어나다.

또한 해조류의 우수성을 입증하고자 친환경 수산물 국제 인증(ASC)을 세계 최초, 세계 최대 획득했다.

양영률/기자



경북 공간정보통합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 완료보고회 개최

도 및 시군, 전문가 의견수렴 통해 공간정보플랫폼 구축 계획 수립

경상북도는 11월 7일 도청 다목적홀에서 경북 공간정보플랫폼 구축을 위한 '공간정보통합플랫폼 구축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용역' 완료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보고회는 용역 수행기관, 도 및 시군 공간정보 담당공무원, 관련 전문가 등 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간 추진한 용역 사업에 대해 보고하고 참석자 의견을 수렴하고자 마련됐다.

이번 사업을 통해 국내외 공간정보 환경을 분석하고, 중앙부처의 정책 방향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해 3차원 기반 공간정보 공동활용체계 구축, AI 기반의 지능공간정보 행정지원 서비스 구축, 도민을 위한 지도기반 생활편의 정

보 제공이라는 과제를 제시하고 세부 이행계획을 수립했다.

경북도는 이번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결과를 토대로 시군과 전문가들이 제시한 의견을 종합해 향후 공간정보플랫폼 구축의 기초자료로 사용하고, 2024년부터 단계별 이행계획에 따라 공간정보플랫폼을 구축할 계획이다.

박동업 경북도 건설도시국장은 "이번 용역을 통해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공간정보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게 됐다"면서, "향후 공간정보플랫폼 구축으로 행정업무가 쉬워지고 도민들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부산시, '제2회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 개최

11.8. 16:00 시청 대강당에서 기념식 개최



'힘내라 소상공인! 소상공인과 함께 웃는 부산!'을 표어로 소상공인의 날을 기념하는 행사가 열린다.

부산시는 오늘(8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청 1층 로비와 대강당에서 '제2회 부산광역시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가 개최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기념식과 부대행사로 나눠 진행되며, 기념식은 부산시 소상공인연합회가 주최하고, 부대행사는 연합회와 (재)부산경제진흥원이 주관한다. 부산시는 후원한다.

'소상공인의 날'은 소상공인의 사회적 지위 향상과 지역주민과의 관계 증진을 위해 2006년부터 매년 11월 5일을 법정기념일로 지정해 기념하고 있다.

부산에서는 2022년부터 제1회 부산시 소상공인의 날 기념행사를 시작으로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이번 행사를 주최하는 부산시소상공인연합회는 부산시 소상공인을 대표하는 법정 경제단체로서, 세무상담, 의료서비스 지원 등 소상공인을 위한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서고 있다.

이날 기념행사에서 소상공인의 날 기념식은 오후 4시 시청 1층 대강당에서 개최되며, ▲소상공인 활성화 유공자 표창 ▲소상공인 활성화를 위한 협력 다짐 ▲2030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원 퍼포먼스 순으로 진행된다.

박형준 부산시장, 하윤수 부산시교육감, 최송희 부산시소상공인연합회장, 김일호 부산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을 비롯해 부산시소상공인연합회 16개 지부 회원과 소상공인 등 7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부대행사는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시청 1층 로비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소상공인연합회 사업 홍보관 ▲소상공인 우수상품 판매전 ▲소상공인 정책 홍보관 등을 마련해 다양한 즐길 거리를 선사할 예정이다.

최송희 부산시 소상공인연합회장은 "이번 행사를 개최할 수 있게 도와주신 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대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며, "이번 행사가 시민과 소상공인이 함께하는 즐거운 시간이 되길 바란다"라고 전했다.

박형준 부산시장은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과 사업을 계속해서 발굴·추진함으로써 우리가 소상공인의 든든한 버팀목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김희태/기자

안동시, 서울시청 광장서 안동사과 홍보 나서

코로나 이후 처음으로 서울시청 광장에서 안동사과 홍보행사 열려

안동시가 서울시민을 비롯한 수도권 소비자를 대상으로 최고의 맛과 품질을 자랑하는 안동사과의 우수성을 알리고자 11월 6~8일까지 사흘간 서울시청 광장에서 열리는 '2023 경북사과 홍보행사'에 참가했다.



올해로 18번째를 맞이하는 이번 행사는 "경북 꼭지사과 맛 좀 볼래?"라는 주제와 함께 4년 만에 서울 시민들에게 찾아가며, 경상북도와 사과주산지 14개 시군협의회가 주최하고 대구경북농능협이 주관한다.

7일 개막식에는 이철우 경북도지사와 권기창 안동시장을 비롯한 사과주산지 시장군수, 오세훈 서울시장, 김형동 국회의원, 도의원, 출향인사, 사과 농가 등 1천여 명이 참석했다.

사과 주산지 14개 시군 지역의 대표 품

종을 전신한 '경북 사과 명품관', 사과의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사과 이야기관', 경북 과수 통합 브랜드 홍보를 위한 '데일리관'을 운영하는 등 다양한 볼거리를 준비했다. 또 행사장을 방문하는 시민들이 꼭지사과를 직접 맛보고 저렴하게 구입할 수 있는 할인판매 행사도 함께 진행된다.

특히, 안동시는 안동사과 홍보부스에서 소비자가 18,000원인 2.5kg 사과 한 박스를 12,000원에 할인 판매한다. 또한, 안동소주, 생강진액, 백진주쌀 등 안동특산물도 전시·홍보한다.

안동사과는 안동의 비옥한 토질과 풍부한 일조량, 일교차가 큰 지리적 여건

을 기반으로 당도가 높고 과즙이 풍부해 식감이 우수한 것이 특징이다. 이를 바탕으로 2007, 2013 농식품 파워브랜드 대전에서 전국 최초로 대통령상을 2회 수상했다.

지리적표시 단체표장 등록, 과원객신사업, 산지유통시설 확충사업을 통해 규모를 늘리고, 품질을 규격화시켜 가격경쟁력을 높였다. 수출에 힘써 농업인의 소득증대 및 안동의 글로벌 브랜드화에 기여했다.

7일 개막식에 앞서 서울 롯데호텔에서는 14개 시군 시장·군수와 경북도 농축산유통국장, 대구경북농능협장 등 16명이 모여 사과주산지시장군수협의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사과 산업 공동 발전방안을 협의하고 건의 사항을 토의했다.

권기창 안동시장은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맛과 품질을 자랑하는 안동사과를 서울 소비자들에게 홍보해 브랜드 인지도를 높이고 지역농가의 소득향상에 이바지할 수 있길 바란다"라며 "철저한 품질관리와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안동사과의 국내외 소비촉진과 판로 확장을 이루도록 총력을 기울이겠다"라고 전했다.

윤근수/기자

의성군, 2024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신청 개시

의성군은 농림축산부산물물의 자원화·재활용을 촉진하고 유기물 공급으로 토양환경을 보전하여 지속가능한 농업기반 조성을 위해 2024년도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2023년 11월 9일부터 12월 8일까지 신청받는다. 유기질비료 3종(혼합유박, 혼합유

기질, 유기복합비료), 부속유기질비료 2종(가축분퇴비, 퇴비) 구입비의 일부가 지원되며, 농업경영체를 등록하고 비료의 종류, 공급시기, 공급업체 및 물량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직접 또는 마을이장을 통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제출하면 된다. 지원이 결정된 대상자에게는 비료의 종류 및 등급에 따라 포대당(20kg) 1,300원 ~ 1,600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

의성군 관계자는 신청기간 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유기질비료 보조금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비료를

9월말까지 수령 신청한 농업인이 9월말까지 공급받지 않을 경우 포기수량으로 간주되므로 농가에서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김주수 의성군수는 "농업인들에게 친환경 농업의 기반이 되는 유기질비료가 지속적으로 공급되게 하여 고품질 농산물이 생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대구광역시는 민선 8기 미래 신성장 동력의 한 축인 ABB 활성화를 위해 전담조직인 AI블록체인과를 신설하고 ABB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숨 가쁘게 달려왔다.

2005년 시작한 이래 아시아에서는 최초로 대구에서 개최됐으며 자연언어처리 AI 분야 세계적인 권위자인 KAIST 오혜연(Alice Oh) 교수와 스위스 로잔연방공과대학(EPFL) 로봇공학 연구실(Reconfigurable Robotics Lab)의 창립자이자 소장인 제이미 백(Jamie Paik) 교수의 기초강연과 함께, 25개의 워크숍, 112개의 논문발표, 포스터 세션, 문화투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ABB 중심도시, 대구 중앙부처 공모사업, 대구광역시 자체 기획 사업을 통한 ABB 산업 성장 기반 마련

신성장 동력 ABB 산업의 활성화를 위한 장으로 대구광역시는 ABB Big Show를 11월 8일 ~ 10일 3일간 엑스코 서관에서 개최된다. 제18회를 맞이하는 대한민국 ICT 융합엑스포와 처음 개최되는 메타버스 박람회 및 ABB 해커톤 대회를 동시에 개최한다.

행사 개막은 11월 8일 오후 3시부터 엑스코 서관에서 내빈 30여명을 모시고 진행할 예정이며, 이번 행사는 ABB를 시작으로 ICT 융합 분야 및 메타버스까지 최신기술을 보고 직접 체험, 토론할 수 있는 장으로 추진하고자 한다.

현재 동시 진행될 엑스포와 박람회의 경우 총 154개 기업, 535개 부스의 규모로 진행될 예정이다. ICT융합, ABB 산업분야 기업 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 및 국외 판로 개척 등을 지원할 예정이며, 체험존과 공개강연 시리즈(모두를 위한 ABB)를 통해 시민들에게 다가갈 예정이다.

부, 산업통상자원부의 후원으로 계획되는 이번 행사는 ABB 및 ICT 융합기술 트렌드 관련 품목 확대, 국내 바이어 매칭 서비스, 해외 수출상담회 초청 바이어 확대를 통해 참가 기업의 성과를 극대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올해 처음 기획된 대중소기업 비즈매칭데이를 통해 40개 대기업, 공공기관과 박람회 참가기업 매칭을 통한 구매상담 및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이며, 중소기업 마케팅 경쟁력 증대 및 판로 확대를 위해 세미나 및 지원 멘토링도 추진할 예정이다.

그 외에도 AI 및업, ETRI 사업화유망 기술 설명회, 대구에서 만나는 오픈소스 SW세미나 등 다양한 부대행사로 함께 진행할 예정이다.

ABB 해커톤 대회는 ABB 활성화를 위해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새로운 서비스 및 제품을 개발의 내용을 담은 대회로 11월 9일(목)~10일(금) 양일간 진행되는 본선, 10일(금) 진행되는 보안경진대회(부대행사)로 구성되어 있다.

해커톤은 아이디어톤, 메이커톤으로 크게 중목으로 구성되고 중목별 AI·빅데이터, 블록체인 분야로 나뉘진다, 2006

년생 이전 출생자(2006년생 포함)부터 지역 상관없이 전국 단위로 팀을 구성해 참가할 수 있다. 예선을 거친 50팀만 본선 참가해 무박 2일간 대회를 치를 예정이다. 그리고 부대행사로 기획된 보안경진대회는 총 10개팀이 마지막날 대회를 치를 예정이며, 참가 조건은 해커톤과 동일하다.

올해 처음 개최되는 대구 메타버스 박람회는 '현실과 가상의 연결고리를 탐험하다'라는 주제를 가지고 메타버스관련 기업, 기관, 단체 등의 제품 및 기술을 전시할 예정이다.

참가규모는 29개사 52부스로 (주)YH 데이터베이스, (주)에이말미디어웍스, (주)와이디자인랩, (주)엠피 등이 참여해 자사의 플랫폼 및 다양한 콘텐츠 및 제품을 소개할 예정이다. 그리고 관람객 대상으로 체험존을 마련해 최신 메타버스 제품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류동현 대구광역시 AI블록체인과장은 "민선 8기의 신산업 동력인 ABB의 현재와 미래를 보여준과 동시에 시민에서 기업까지 모두가 ABB를 경험할 수 있는 행사로 마련했다"면서, "이 행사를 시작으로 대구가 ABB 중심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청송군, 경로당 "찾아가는 한방사업" 큰 호응 얻어

청송군은 지난 9월부터 10월까지 8주간 운영한 찾아가는 한방사업이 큰 호응을 얻으며 성황리에 종료됐다고 밝혔다.

청송군보건의료원 방문보건팀은 진보면 각산리, 현동면 눌인3리, 파천면 지경리 경로당을(3개소) 중심으로 한방사업을 운영했으며, 한의사가 경로당을 방문해 어르신에게 1:1 건강상담과 침시술을 통해 개인별 맞춤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고 한방기공체조 교실을 운영했다.

특히 어르신들의 주 생활터인 경로당을 방문해 운영한 만큼 자가건강관리 능력 향상 및 합병증 예방과 일상생활 자립능력 증진에 많은 도움이 됐다

윤경희 청송군수는 "앞으로도 의료 취약계층을 위한 보건사업을 확대 운영하여 어르신들의 건강한 노후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며, "건강한 청송을 만들기 위해 개인별 체질에 맞는 한의약 건강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펼치겠다."고 밝혔다.

윤근수/기자

영양군,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급

영양군은 올 하반기부터 관내 장기요양기관 15개소 246명의 종사자에게 매월 3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한다고 밝혔다.

영양군은 고령사회 가속화에 따른 장기요양 서비스 수요가 늘면서,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근무하는 관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 확보를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처우개선비를 지급한다.

영양군은 올 하반기부터 관내 장기요양기관 15개소 246명의 종사자에게 매월 3만 원의 처우개선비를 지급한다.

영양군은 고령사회 가속화에 따른 장기요양 서비스 수요가 늘면서, 열악한 노동환경에서 근무하는 관내 장기요양기관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예산 확보를 통해 올해 하반기부터 처우개선비를 지급한다.



윤근수/기자

경상북도농업기술원, 뚝은감 1년 농사, 책 한 권으로 해결!

상주감연구소, 감 농사 길잡이 매뉴얼 발간해 농업인·시군센터 배부



경상북도농업기술원 상주감연구소는 경북의 대표 작목인 뚝은감 재배에 꼭 필요한 내용들만 모은 월별 재배 매뉴얼을 제작해 한 권의 책으로 발간했다.

최근 감 생육 기간 중 이상기후 현상에 의해 냉해, 우박 등 기상재해를 겪는 농가가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 잦은 강우로 탄저병, 등근무늬엽병 발생 등 돌발 병해충으로 감 재배에 어려움을 겪는 농가가 많아지고 있다.

상주감연구소는 이러한 농업인들의 어려움을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고품질 감을 생산할 수 있도록 '감나무 1년 농사 이렇게 준비하세요(부제: 감 재배 월별 매뉴얼)' 책자를 발간했다.

이번에 발간한 책자는 28페이지 분

량의 소책자로 1년 동안 감 과원 관리에 필요한 농작업을 월별 단위로 나눠 구성했으며 과원만들기, 정식, 전정 및 시비 등 재배기술, 병해충 방제, 꽃감만들기 등 다양한 핵심기술을 총망라해 농가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했다.

발간된 책자는 농업인과 시·군 농업기술센터 등에 배부해 감 재배 농업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을 줄 계획이다.

조영숙 경상북도농업기술원장은 "상주감연구소가 농업인들의 요구에 부응하고 뚝은감 재배 현장의 애로사항을 해소하는 데 더욱 매진하며, 지역 뚝은감 연구기관으로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윤근수/기자

부산시, 대만 타이베이에서 마이스 로드쇼(유치설명회) 개최

부산시가 찾아가는 마케팅을 통한 마이스 행사 유치에 나선다.

부산시는 부산관광공사와 함께 지난 7일부터 대만 타이베이에서 '2023 타이베이 마이스 로드쇼'를 개최하고 있다고 밝혔다.

마이스 로드쇼는 11월 7일부터 11월 10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마이스 로드쇼는 대만(타이베이) 현지 주요 기업, 여행업계 마이스 책임자들을 대상으로 한 마이스 유치설명회로 마이스 목적지로서의 부산의 도시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를 통해 부산의 마이스 시장 다변화를 적극 모색하고, 실질적 마이스 유치 증대를 도모한다.

대만 타이베이는 인구 260만 명이 거주하는 대만의 수도로서, 정치, 경제, 문화, 국제교류중심지이며 부산과 직항으로 연결된 도시다.

타이베이시에는 인센티브(포상) 관광 전문여행사와 대형 아웃바운드 여행사(콜



라여행사, 봉사여행사) 외에도 뉴스킨과 같이 한국을 대상으로 인센티브(포상) 관광 이력이 있는 기업 등이 있어 인센티브(포상) 관광과 국제회의 등의 수요가 많은 지역이다.

행사의 주요 프로그램은 비즈니스 상담회와 리셉션 행사인 '부산 마이스 나이트'로

구성되며, 시는 성과 극대화를 위해 세일즈 콜(방문상담)을 병행해 우수 마이스 개최지 '부산'의 우수성을 적극 홍보한다.

행사에는 호텔, 여행사, 국제회의 전문업체(PCO), 면세점, 카지노 등 13개 지역 마이스업체와 대만(타이베이) 중대형 인센티브(포상) 관광 여행사 등에서 책임

자급 80여 명이 참석했다.

특히, 시는 이번 행사를 위해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현지 출장단을 꾸렸고, 행사 현장에서 안 부시장이 직접 부산의 마이스 유치 의지와 부산의 우수한 도시브랜드를 참가자들에게 적극 강조해 큰 호응을 얻었다.

부산관광공사 관계자는 "이번 행사를 계기로 대만의 마이스 행사 유치를 적극 추진해 지역 마이스 업계의 경쟁력을 한층 개선하고, 마이스 도시 부산의 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안병윤 부산시 행정부시장은 "부산의 마이스 시장을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장 다변화와 공격적 마케팅 전개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라며, "대만 마이스 행사 유치를 위해 지역 업계와 함께 협업 마케팅을 적극 전개하여 다른 도시와의 유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도록 하겠다"라고 전했다.

김희태/기자

울진군, 부모와 함께하는 주말 프로그램 '더 다가감 캠프' 운영



울진군은 지난 4일부터 5일까지 1박 2일간 금강송에코리움에서 부모와 함께하는 주말 프로그램 '더 다가감 청소년 가족캠프'를 운영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관내 초등4~6학년 가족 40명을 대상으로 다양한 체험활동을 통해 서로 소통하면서 사춘기 청소년을 더 이해하는 기회를 제공하고 사 마련됐다.

금강송테마전시관 견학, 건강 요가, 나에게 어울리는 향수 만들기, 생크림 케이크 만들기, 가족 팀빌딩 게임 등의 다양한 활동으로 운영되어 즐거운 추억을 쌓는 가족 화합의 장이 됐다.

캠프에 함께한 한 청소년은 "다음에 또 다시 오고 싶을 만큼 너무 즐거운 캠프였고 특히, 케이크 만들기와 레크리에이션을 하면서 부모님과 더 가까워진 것 같아 잊지 못할 추억이 됐다"라고 소감을 전했다.

순병복 울진군수는 "금강송나무 숲속에서 청소년 가족이 함께 소통하고 유익하는 캠프를 통해 가족 간 유대를 더욱 강화하는 시간이 됐길 바란다"며 "힐링과 소통이 이뤄지는 건강한 가족 공동체를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문화/기자

영덕군 병곡중, BGM락밴드 페스티벌 참가

인성교육 교사동아리-사제동행밴드 활동



병곡중학교(교장 김종태)는 지역 소규모학교와 연합하여 인성교육 교사동아리 활동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 사업의 일환으로 영덕군 영덕문화관광재단과 함께 협력형 생활문화 활성화 사업인 청소년 문화축제 '제2회 오락가락 페스티벌'에 참가하여, 참여 학생들과 학부모에게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해에 이어 열리게 된 청소년 예술제 오락가락 페스티벌은 지역 내 청소년들을 위한 행사로 진행됐으며 1일 (대중, 댄스 장르), 2일 (클래식 장르)로 2일간 진행하는데, 1일은 병곡중학교 락밴드 동아리 'B.G.M.밴드, 리듬 B.G.M.밴드, 바나나오 형제 팀이 참여하여 총 8곡을 발표하여 많은 관객으로부터 찬사를 받았다.

엔 관내 14개 학교의 20팀이 참여해 페스티벌을 즐겼다.

페스티벌에 참여한 김도년(중3) 학생과 사제동행 밴드의 보컬을 맡은 정유진 행정실장은 "중고등학교 밴드들의 연주곡을 들으면서, 우리 B.G.M.밴드의 실력도 점검하는 계기가 됐고, 무엇보다 좋은 무대와 음향 장비, 영상 장비를 준비해서 청소년들이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좋은 무대 경험을 쌓을 수 있도록 해 주신 영덕문화관광재단 모든 분들과 함께 해 주신 스태프들, 봉사자들, 늦은 시간까지 응원해 주신 우리 선생님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덕곡천 무대 결을 가득 메워서 힘차게 응원해 주신 많은 분들과 가족들, 친구들에게 고마움을 전한다."라고 말했다.

재단 김민석 총괄 팀장은 "청소년 기획

경주시, 1년 계도기간 거쳐 24일부터 '1회용품 사용규제' 확대 시행

위반시 과태료 300만원 이하 부과, 머그컵 및 다회용컵 사용 권고

경주시는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제도'가 1년 기간의 계도기간을 거쳐 오는 24일부터 전격 시행된다고 7일 밝혔다.

1회용품 사용규제는 관련법 개정 따라 2022년 11월 24일부터 업종별 적용대상 품목이 확대됐으나 현장의 부담과 제도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1년간의 계도기간을 운영해 왔다.

1회용품 사용규제 대상 품목은 △ 종이컵·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식품접객업, 집단급식소 매장 내 사용

금지) △ 비닐봉지(종합소매업 등 사용금지) △ 일회용 플라스틱 용원 용품(체육시설 등 사용금지) △ 우산 비닐(대규모 점포 등 사용금지) 등이다.

단 음식물을 배달하거나 고객이 음식물을 가져가는 등의 경우는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계도기간 이후에는 관련법에 따라 위반 시 매장 면적과 위반 횟수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는 강화된 1회용품 사용규제 제도를 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 시 홈페이지, 알파배기 경주소식 문자서비스, 경주시 SNS를 비롯해 현수막, 식품접객업소 및 관련 기관·협회 등에 적극적으로 홍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1회용품 사용규제 계도기간 종료가 다가옴에 따라 관련 사업장과 시민들의 혼란을 줄여 제도가 원활하게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겠다"며 "시민 여러분도 일상에서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적극 동참해 달라"고 당부했다.

윤태용/기자



예천군, 지방시대위원회 '지역 발전 우수사례'로 선정... 지방시대 이끌며 '도약'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 지방시대관 성공사례 호응



예천군은 지방시대위원회가 1일부터 3일까지 대전컨벤션센터에서 개최한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에서 지역 발전 우수사례로 선정됐

다. '2023 대한민국 지방시대 엑스포'는 '이제는 지방시대'를 주제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이후 처음 열렸으며, 정부의 지방자치·균형발전의 비전과 정책, 성공사례 등을 공유하고 소통하는 국내 최대 지역박람회이다.

이번 박람회에서 예천군은 지역 소멸위기를 극복하고 지방시대의 모범으로 거듭난 지역발전 우수사례로 아산, 순천과 함께 전국 3개 시군에 선정, 지방시대 핵심정책을 담은 '지방시대관'에 소개되며 호응을 얻었다.

특히, 육상 관련 인프라 확충 등 스포츠 산업을 통한 지역 정체성 확립으로 경제효과를 창출한 점을 높이 샀다.

군은 기존 공설운동장을 '예천스타디움'으로 리모델링하고 국내 유일 육

상실내훈련장을 갖춘 육상인프라를 배경으로 대한민국 최초로 2023년 아시아U20육상경기선수권대회를 개최하는 등 세계적인 육상 도시로 성장, 관광·광역 유치와 일자리 창출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유도했다.

또한, 육상뿐 아니라 김제덕 선수를 포함해 '2024 현대양궁월드컵 대회' 개최 등 양궁의 도시로서도 명성을 공고히 하고 있으며, 주민주도의 체육활동 지원으로 주민 삶의 질 향상에도 기여하고 있다.

김학동 군수는 "원도심과 신도시 상생발전을 이루며내 관광·스포츠, 출산·육아, 농축산, 환경 등 여러 방면에서 역점사업에 집중하며 지방시대를 선도하는 예천군으로 도약하기 위해 부단히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금자/기자

충북도, 제5회 충북 창업페스티벌 개최

충북 창업 붐 조성을 위한 창업 주체들의 협력과 소통의 장(場) 마련!



충청북도는 7일 진천 롤스퀘어에서 창업가와 투자자 등 3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충북 창업페스티벌을 개최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충청북도가 주최하고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충북대학교 산학협력단, 충북프로메이커센터 등 총 9개 기관이 공동으로 주관하며 충북바이오산학융합원 등 7개 창업유관기관이 참여하여, 창업가들이 주인공이 되어 즐길 수 있는 축제의 장으로 마련됐다.

개막행사에서는 창업우수기업 3개사(주식회사 웅스, (주)티에치팜, (주)탄탄) 및 유공자 4명(충북대학교 산학협력중점교수 연선미, 서원대학교 산학협력단 팀장 황종운, 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책임 안영재, (주)건국대학교글로벌기술지

주 본부장 박영욱)에게 도지사 표창이 수여됐으며, 2023년 주니어 창업경진대회 대상팀에게 도지사상이 수여됐다. 또한, 5개 기업((주)씨티에스, (주)메디씨, (주)코이즈, (주)웃샘, (주)엔피에스)에게 일류벤처기업 지정서가 수여됐다. 이어, 민선8기 핵심 공약인 '충북창업펀드 1000억 조성' 실현을 위한 충북창업펀드 조성 협약이 충청북도, (재)충북창조경제혁신센터, (주)BSK인베스트먼트, (주)푸른인베스트먼트, 엑스퀘어드(주), (주)알파브라더스 6개 기관이 참여한 가운데 체결됐다.

이번 협약식을 통해 충북창업펀드의 원활한 운용과 앞으로의 기관 간 상호 협력을 다졌다.

또한, 새롭게 개발한 BI와 CI를 반영

하여 제작한 연을 띄우는 퍼포먼스로 참석자들의 눈길을 끌며 충북과 충북창업이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희망을 전했다.

이외에도 제9회 충북 창업 노마드포럼이 개최되어 친환경에너지, 스마트팜, 로컬크리에이터, 바이오 4개 분야의 패널토론을 진행했으며, 4개 창업기업의 성공스토리 발표가 있었다. 특히, 올해 코스닥 상장에 성공한 (주)파로스 아이바이오와 유진테크놀로지의 성공스토리가 참석자들로부터 뜨거운 관심을 받았다.

이뿐만 아니라, 미국의 로컬 선진지 견학을 다녀온 로컬크리에이터들의 탐방 결과물 상영회와 토크콘서트, 2023년 도내 창업경진대회 수상자들의 리그전인 IR콘테스트가 주요행사로 진행됐으며, 창업유관기관 사업설명회, 창업가와 투자자 및 전문가와의 미팅, 그린바이오 및 로컬 제품 전시, 다양한 아이템 제작을 체험하는 메이커 체험존 등의 부대행사가 행사에 흥미를 더했다.

김영환 도지사는 "최근 충북은 대한민국 '중심에 서다'라는 새 이름을 가지며 정체성을 확립해 가고 있고, 충북을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이끌 지역경제의 핵심은 바로 창업"이라고 강조하며, "스타트업의 발굴에서 성장 지원까지 충북도가 전국에서 가장 창업하기 좋은 도로 거듭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고정화/기자

남원시, 역대 최대규모 '2024 지방소멸대응기금' 112억 원 확보, 상위 20% 포함

행정안전부 주관 '2024년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결과 A등급



남원시는 행정안전부 '2024 지방소멸대응기금 투자계획' 평가 결과 상위 20%에 포함되는 A등급을 받아 사상 최대 규모인 112억원을 확보했다고 7일 밝혔다.

시는 그동안 전체 89개 인구감소지역 중에서 C등급을 받아 2022년 60억원, 2023년 80억원을 배분받았으나, 이번에는 기금사업 주요사제로 소개될 정도로 상위 20%에 포함되는 A등급에 지정되어 최하위 등급보다 무려 48억원이 많은 112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시는 정주여건 개선과 생활인구 10만 유치를 위하여 전라북도 동부권과 지리산권 시군 간 연계·상생협력이 가능한 지역혁신형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과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 및 관광루원·합파우아트밸리

연결 아트브릿지 조성, 전라북도 동부권 공공산후조리원 건립, 남원 인재학당 건립 및 운영, 지리산 위계시선 조성 등 6개 사업을 기금사업에 담아냈다.

특히 이번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로 지리산 허브밸리 내에 계획 중인 '지리산 활력타운 조성'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동 사업을 통한 주거시설 78호를 비롯한 대규모 복합생활 거점 조성으로 지역대 정주환경이 대폭 개선되고 귀농·귀촌 인구유입의 기폭제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지역혁신형 천연물 바이오소재 생태환경 기반조성'사업은 남원시만의 특화사업으로, 남원시가 현재 공모 중인 '지역특화 임대형 스마트팜 사업'과 연계하여 농업 생산성 향상과

양질의 일자리 창출, 창업·창업 확대 등을 통해 인구 활력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광한루원·합파우아트밸리 연결 아트브릿지 조성'사업은 광한루원과 남원의 핵심문화관광지구인 합파우아트밸리를 아트브릿지로 연결하여 광한루원을 찾는 100만명을 합파우로 이끌어 체류시간을 늘려 생활인구를 확대하는 사업이다.

전라북도 동부권과 지리산권 연계사업인 '지리산권 공공산후조리원 건립'과 '남원 인재학당 건립 및 운영'은 2022-2023년 기금사업으로 추진 중인 계속 사업으로 현재 부지 매입을 완료하고 사전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등 차질 없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앞서 지방소멸에 대응하기 위해 인구 활력 특화사업을 발굴 시민소통위원회를 통해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행정안전부와 전라북도 컨설팅을 수차례 받으며 사업간 연계성을 확보하고 평가 기준에 맞는 투자계획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고군분투해왔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우리는 인구소멸을 극복하기 위해 육아·보육·교육 등 정주여건 개선과 함께 생활인구 10만명 유치 목표를 세우고 다방면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적극 활용하여 누구나 찾고 살고 싶은 경쟁력 있는 도시를 만들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남출/기자



경남도-고성군-SK오션플랜트(주) 투자협약(MOU) 체결

해상풍력발전 하부구조물 후육강관 제조공장 신규 투자

고성군은 11월 7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린 인베스트 코리아 서밋 2023 행사장에서 경남도, SK오션플랜트(주)(대표 이승철)와 해상풍력발전 하부구조물 후육강관 제조공장 설립을 위한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투자협약 체결식은 경남도 경제부지사, 고성군수, SK오션플랜트(주) 대표이사 참석하신 가운데 진행됐다.

협약의 주요 내용은 SK오션플랜트(주)가 고성군 동해면 일원에 약 70,000m² 공장부지 규모로 약 1,100억 원을 투자해 해상풍력발전 하부구조물 후육강관 생산 공장을 설립한 후 신규 직원 200명 이상을 고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경남도와 군은 투자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법령과 예산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행정적, 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현재 SK오션플랜트(주)는 조선기자재 및 해양플랜트 설비 생산공장으로 정상 운영되고 있다.

또한 국내 최초 후육강관 국산화 및 해상풍력 하부 구조물 수출에 성공한 세계적인 조선해양 전문기업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며, 이번 협약을 통해 해상풍력발전 하부구조물 후육강관 제조 공장 시설까지 갖춰 육·해상플랜트 발전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으로 보인다.

이성근 고성군수는 "이번 투자 협약대로 사업을 추진하면 지역 내 일자리 창출은 물론 지역 경제 활성화와 지역 발전에 크게 이바지 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기업하기 좋은 도시 조성하고 기업이 상생하고 소통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10월 경남도와 고성군은 삼강엔터티(현 SK오션플랜트(주))와 고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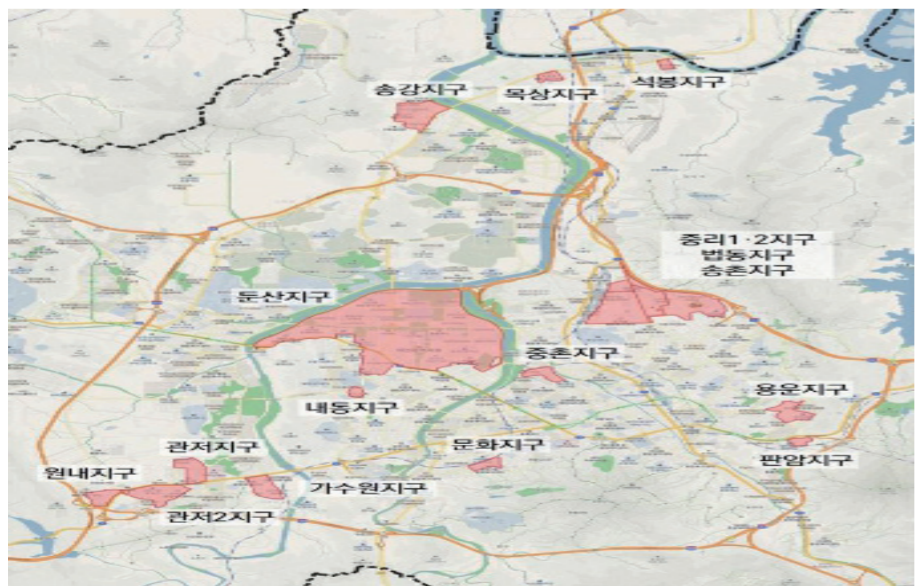


조선해양산업특구 양촌-용정지구에 2027년까지 7,350억 원 투자, 신규 고용 2천명 고용 투자협약을 체결하며, 해상풍력발전 전문단지를 조성하고 있다.

최광용/기자

대전시, 장기택지지구 관리 해법 시민에게 듣는다

8일부터 5개 구 순회 주민 의견 청취회, 내년 상반기까지 관리방안 마련



대전시는 둔산 등 장기택지지구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자치구별로 순회하며 주민 의견 청취회를 개최한다.

주민의견 청취회는 8일(14시) 중구를 시작으로 9일(14시) 대덕구, 13일(14시)

서구, 14일(14시) 동구, 17일(14시) 유성구 순으로 개최한다.

대전시는 준공 30년이 도래하는 17개 장기택지지구를 대상으로 인구·사회적 여건 변화를 반영하여 정주 환경 개선 및 공간구조 재편 등을 위한 체계적인 관리 방

안을 마련 중이다.

대전시는 지난 2월 도시계획 전문가를 총괄 계획가(MP)로 위촉하여 대상지구의 현장답사와 기초자료를 분석해 왔고 도시계획 정비 및 아이디어 발굴을 위해 분야별 전문가를 구성하여 전문가 자문회의를 진행해 왔다.

대전시는 이번 주민 의견 청취회를 통해 장기택지지구 관리 방안 마련 용역 취지와 현황분석 및 관리 방향성 등에 대해 설명하고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여 2024년 상반기까지 장기택지지구 관리방안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주민공람, 관련기관 협의 및 도시계획·건축공동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거쳐 재정비 계획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대전시 관계자는 "장기택지지구는 준공된 지 30년이 지나 시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다"라며 "이번 청취회를 통해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더 나아가 지속 가능한 명품 도시로 재편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김원호/기자

가장 한국적인 곳 경북

신비로운 철의 왕국 대가야

신라 천년의 수도

고령 지산동 고분군

불교 건축의 정수

경주 석굴암

영주 부석사 무량수전

역사와 문화의 고갯길

문경 새재

노블레스 오를리주

안동 임청각

경북은 금옥에 이련 유서 깊은 명소가!

경상북도 GYEONGSANGBUK-DO 사진 출처: 문화재청

강원특별자치도, 빈대(Bed Bug) 박멸 위해 특별조정교부금 1억 긴급 지원

취약계층 시설과 소독의무 대상시설 등에 방역 소독 지원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최근 전국적으로 빈대 공포가 확산됨에 따라

특별조정교부금 1억 원을 긴급하게 편성하여 취약계층 시설과 숙박업소, 식품접객업소 등 도내 소독의무 대상 시설 등에 방역 소독을 지원한다. 현재 도내 직접적인 피해 신고 접수건은 없으나, 최근 원주의 한 기숙사에서 빈대가 출몰해 소독을 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현장에서 사업주와 방역업체에서 방역을 진행한 바 있다. 김진태 지사는 "빈대는 특별한 감염병을 매개하지 않아서 관리대상은 아니지만, 가려움증, 수면장애, 피부 감염 등 2차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면서, "소독의무 대상시설을 비롯해 외국인 근로자 기

숙사, 고시원 등 주거 취약계층 시설에 소독을 지원해 빈대로부터 안전한 강원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현재, 도에서는 도내 소독의무대상시설에 정해진 횟수와 기간에 맞춰 소독을 실시할 것을 당부했으며 이외에도 목욕탕, 대중교통 등 다중이용시설 등과 다수가 생활하는 기숙사, 병원, 요양원 등에도 위생관리를 강화할 것을 안내했다. 또한, 가을 단풍과 겨울 스키장 등 관광객들의 숙박시설 이용이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연말까지 도와 18개 시군이 함께 소독의무대상시설의 위생관리 현장실태를 지속적으로 점검해 나갈 계획이다.

이등원/기자

김태흠 충남도지사, 이웃사랑 김장 나눔 봉사

7일 '함께하는 김장김치 나눔행사' 참여... "따뜻한 손길 감사"

김태흠 충남도지사가 우리 농산물 소비 촉진 및 어려운 이웃 돕기를 위한 김장 나눔 행사에 참여해 따뜻한 마음을 나눴다.

김 지사는 7일 내포신도시 농협 충남세종본부에서 열린 '함께하는 김장김치 나눔행사'에 참여해 함께 김치를 담그며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시군 여성조직과 농협 직원 등을 격려했다.

함께하는 김장김치 나눔행사는 농협 충남세종본부가 시군 여성조직과 추진하는 이웃사랑 실천 행사로, 매년 11월 중 개최하고 있다.

이날 고향주부 모임, 농가주부 모임 등과 함께 담근 김장 김치 1만 kg은 도내 저소득층과 취약가구, 경로당, 사회복지시설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이 자리에서 김 지사는 "우리집 김치를 버무리는 것만 해도 바쁘고 힘들 텐데 어려운 이웃을 먼저 생각해 따뜻한

손길을 건네주신 여러분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린다"라면서 "도는 여러분의 나눔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나아가 여성농업인의 역량 강화와 농작업 여건 개선 등 지위 향상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김 지사는 "우리 속담에 '김장은 겨울철의 반(半) 양식'이라고 했다"라며 "여러분의 사랑이 담긴 1만 kg의 김장 김치는 우리 이웃들이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소중한 양식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정근/기자



아산시 먹거리 문제를 함께 고민할 "제2기 아산시 먹거리 위원회" 출범

박경귀 아산시장 "먹거리재단의 충실한 조연자·안내자 역할 해주시길"



아산시 먹거리 계획 수립과 실행을 함께 고민할 '제2기 아산시 먹거리 위

원회'가 공식 출범했다. 7일 온양관광호텔에서 열린 출범식에는 박경귀 아산시장을 비롯해 새로 위촉된 2기 먹거리위원회 위원 50명이 참석했다. 공개모집 및 부서추천을 통해 선정된 제2기 아산시 먹거리위원회 위원 50명은 앞으로 2년 동안 기획·조정, 소비·유통, 생산·가공, 교육·홍보 등 4개 분과에 소속되어 아산시 제2차 푸드플랜 계획의 수립과 원활한 실행을 위해 일하게 된다.

이날 출범식에서는 생산·가공 분과 고삼숙 위원(골다리 영어조합법인 대표)이 민간공동위원장으로 선출됐다. 아산시 먹거리 위원회는 '아산시 먹거리 보장 기본 조례'에 따라 박경귀 아산

시장과 선출된 민간위원장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는다.

박경귀 시장은 "아산시는 도시와 농촌이 어우러진 대표적인 도농복합도시"라면서 "체계적인 먹거리 계획을 통한 지역 내 선순환 체계 확립은 조화로운 도시 발전은 물론 시민에게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아산시 먹거리위원회는 지역 내 먹거리 소비 시스템이 원활하게 구축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하고 "1기 먹거리위원회의 성공적인 운영에 힘입어 오늘 위촉된 2기 위원 여러분들도 각자의 전문 영역을 살려 먹거리재단의 충실한 조연자이자 감독자, 안내자 역할을 맡아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편 아산시는 그간 지역 내 생산·소비 등의 먹거리 전략체계 기초를 마련하기 위한 '아산시 푸드플랜'을 확립하고, 먹거리 기본권 보장과 지속 가능한 먹거리 선순환 체계 구축 등 공공성을 기반으로 한 먹거리 통합관리 운영체계 마련에 힘쓰고 있다.

김원호/기자

태백시, 2023년 독감 지자체 유료 및 무료 예방접종 실시



- 유료 대상자: 14세 ~ 64세 이하 태백시민(접종비:10,700원)
- 무료 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정도가 심한 장애인, 당해연도 현혈자 보건소 등록 재가진폐환자 및 배우자, 다문화가정 이민자

접종 장소 별 기간	장소	일시	대상	기타
철암보건지소		23. 11. 7.(화)/13:00~17:00	* 65세 이상 어르신 무료접종	철암동, 구문소동 주민우선
		23. 11. 9.(목)/13:00~17:00	* 기초생활수급자등 무료대상자	
보건소		23. 11. 22.(수) 13:00~17:00	*14세~64세 태백시민 (유료)	태백시민 무료대상자
		23. 11. 14.(화) 09:00~17:00	* 기초생활수급자등 무료대상자	
		23. 11. 16.(목) 09:00~17:00 (오전접수11:30분 마감)		
		23. 11. 21.부터 매주 화/ 목 (오전접수11:30분 마감)	*14세~64세 태백시민 (유료)	백신소진시 까지

태백시보건소 | 033-550-3034 | 태백시 태백로 905

태백시는 취약계층의 건강관리 및 겨울철 독감 확산 방지를 위해 독감 유·무료 접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독감 무료 예방접종 대상은 태백시민(14~64세) 중 기초생활수급자, 국가유공자, 심한 장애인, 당해연도 현혈자, 보건소 등록 재가진폐환자 및 배우자, 다문화가정 이민자를 대상으로 한다.

철암보건지소는 오는 7일(화)과 9일(목) 오후 1시에서 5시까지 접종을 실시하며, 태백시보건소는 14일(화)과 16일(목) 오전 9시부터 5시까지 접종을 실시한다.

유상근/기자

천안시 충청남도 시장·군수협의회, 정기회의 개최...현안사항 논의

지방세입 감소에 따른 세수 보전 대책 등 15건 건의



충청남도 시장 군수협의회는 7일 부여 롯데리조트에서 민선8기 2차년도 제2차 정기회의를 열었다.

이날 15개 시·군 단체장들은 중앙정부와 도에 건의할 시·군별 건의 및 현안사항을 논의하고 홍보사항 등을 공유했다.

이들은 충남 해상풍력 신항개발관련 공동협력(보령), 곤충산업시설의 악취배출시설 지정(아산), 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국비 지원(당진), 보복성·반복 민원 대응 관련법 개정(부여) 등 15건의 주요 안건을 중앙정부와 충남도에 건의했다.

특히 천안시는 지방세입 감소에 따른 세수 보전 대책을 건의했다. 정부의 세입결손에 따른 교부세 감액 방침과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지방세입 감소로 지자체의 재정난이 예상됨에 따라 정부의 세수 보전 대책을 건의해 공감대를 형성했다. 공동건의문으로 화력발전소 폐쇄에



김원호/기자

원강수 원주시장, "학생·청년과의 소통 무엇보다 중요해"

연세대학교 학생기자들과 원주시정,청년정책에 대해 이야기꽃 피워

원강수 원주시장은 지난 6일 연세대학교 미래캠퍼스에서 대학 언론사 연세춘추 학생기자들을 만나 원주시정과 청년정책 전반에 대해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인터뷰는 학생기자들과 격의 없는 대화를 통해 원주시가 추진해온 청년정책과 시정 주요정책 방향을 되짚어보고 청년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모색하기 위해 성사됐다.

이날 원강수 원주시장은 민선8기 출범에 따른 그동안의 시정 성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변화, 인구소멸 위기 속 원주시 대응전략,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지방대학의 위기 타개 방안 등에 대해 학생들과 눈높이를 맞춰가며 의견을 나누었다.

또한, 원주에서 학업을 이어가는 학생들이 실생활에서 겪고 있는 교통 문제 등의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다소 무거운 주제 속에 딱딱해질 수 있는 분위기를 전환하고자 원강수 원주시장은 인터뷰 중간 교대를 함께 거닐며 학업, 취업에 대한 고충을 수렴하고 앞으로 원하는 꿈을 펼쳐 나갈 수 있도록

격려 또한 아끼지 않았다.

이번 인터뷰 내용은 11월 20일 주간지로 발행돼 연세대학교 미래·신촌 캠퍼스에 배포될 예정이다 연세춘추 홈페이지에도 게시된다.

김정환/기자



군산·해수부 수산물 물가 안정 위한 가공 및 유통 현장점검

물가 안정을 위한 유통가격 점검 및 가공·유통 관계자 애로사항 청취



군산시가 해양수산부와 물가 안정을 위해 수산물 가공·유통 현장 등을 방문해 가격 점검 및 업계 관계자들을 만났다.

7일 시는 해양수산부와 해망동에 위치한 수산물 가공거점단지에서 수협 군남사업팀, '화우당', '밥강도'를 방문해 수산물 가격 추이를 파악하고 수산업 관계자들을 만나 업계 애로사항을 청취하는 등 현장을 점검했다.

거점단지는 크게 위판물류동, 수산가공동으로 나뉘져 있으며 위판물류동에는 수협 위판장, 군남사업팀이 위치하고, 수산가공동에는 수산물 수출유망 가공업체 5개소가 위치해 있다.

현장을 방문한 해수부 최용석 수산

정책실장은 "현재 수산물 가격이 꾸준히 안정세를 보이고 있고, 소비자와 업체들이 물가 안정에 안심할 수 있게 하겠다"며 "수산물 가공업체들이 품질관리 및 제품개발에 전념해 수출의 신장세를 이어갈 수 있도록 총력을 다해 지원하겠다"고 전했다.

장영재 경제항만혁신국장은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등의 문제로 소비자와 수산업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데 이번 합동점검으로 수산물 물가 안정을 달성하고 다양한 수산물 소비촉진 행사 등을 통해 수산물 가격안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김원태/기자

135조원 서울시 재산, 이렇게 관리해도 되는 것인가

'공유재산관리시스템' 운영에도 불구하고 효율적 재산관리 되지 못해

서울특별시의회 김원태 행정자치위원회(국민의힘, 송파구 제6선거구)은 2023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재무국에서 사용 중인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이 제 기능을 갖추지 못해, 서울시 시유재산의 효과적인 활용을 저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시급한 개선을 주문했다.

김원태 위원장은, 현 시스템에서는 시유재산에 대한 사용허가, 대부, 무단점유, 사용료 및 변상금 현황 등에 대한 데이터가 제대로 구축되지 않아서, 이에 대한 정보가 필요할 경우 소관 재산관리관이 일일이 현장을 방문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있다면서, 시대에 맞지 않는 시유재산 관리 실태에 대해 재무국장 등 관련 공무원의 무관심을 집중 질타했다.

이에 대해, 한영희 재무국장은 현행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은 행정안전부가 운영하고 있는 "시도행정정보시스템"의 18개 중 하나의 시스템으로써, 각 지방자치단체가 그 유지·보수 비용을 부담하는 체계로 운영되고 있다고 설명하고, 이로 인해 자료의 구축이나 활용 기능 마련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을 인정하면서, 행정안전부와의 적극적 협력을 통해 건축물대장 등 시유재산과 관련하여 산재된 각종 정보의 연계를 통해 효율적인 시스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김원태 행정자치위원장은, 135조원



규모에 달하는 시유재산은 결국 시민의 재산이라면서, 이를 효과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재무국의 존재 이유라고 질타하면서, 현 시대에 이런 이해할 수 없는 정보시스템의 비효율은 결국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정보화시스템 사용을 제한하고 있는 '전자정부법'에 따라 전국에 걸쳐 표준시스템 사용을 강제하는데 인연이 있다고 주장했다.

행정안전부는 2008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설립을 통해, 시도행정정보, 시군구행정정보, 문서 및 문서유통, 지방세정보, 지방재정관리 등 14종의 지방자치단체 표준 정보화시스템을 독점 운영하

고 있고, 지방자치단체는 분담금, 운영비 등 그 운영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 운영은 '전자정부법'에서,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는 소관 정보화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한국지역정보개발원을 설립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추진하는 정보화사업의 지원하도록 규정하면서, 필요한 경비 총당을 위해 연구원에 출연하도록 규정한 것에 근거하고 있다.

김원태 위원장은, 이로 인해 오히려 서울시의 경우 자체 고도화된 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게 됐고, 오히려 하향평준화된 품질의 시스템을, 불편을 감내하며

사용하고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부의 획일적인 시스템을 강제 사용 제도를 비판했다.

나아가, 표준화된 시스템에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는데 굉장한 시간과 노력이 소모되고 있고, 이런 이유로 '공유재산관리시스템' 또한 서울시의 다양한 분야의 정보를 탑재하지 못해서 시유재산 관리의 비효율이 지나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행정안전부는 시스템 통합 운영 제도의 취지에 대해, 전국에 걸쳐 동일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설명하고 있지만, 전문가에 따르면 요즘 시스템 연계 기술의 발달로, 분산된 시스템 간의 연계를 통한 정보의 공유는 얼마든지 가능하다는데, 메가시티 서울특별시의 경우에는 특화된 기능이 많이 필요하고, 이런 특성을 충분히 담아 활용할 수 있는 독자적인 시스템 운영이 필수적이고, 정보의 공유는 필요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사용하면 될 일이라며, 중앙집권적 정보화시스템의 운영의 부당성에 대해 재무국의 적극적 대처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한영희 재무국장은 정보화시스템 고도화에 관련 기관의 협의를 통한 개선을 통해 효율적인 공유재산관리시스템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대답했다.

최광수/기자

장성군, 산불 예방활동 집중... 소각행위 단속

산불 헬기, 진화대 감시활동 시작... 예방수칙 홍보



장성군이 겨울철 산불 예방에 만전을 기한다. 군은 이달부터 산불 헬기와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동원해 본격적인 산불 감시활동에 들어갔다.

산불 발생 원인의 절반 이상이 쓰레기 소각, 담뱃불 등 부주의로 발생하는 만큼, 군은 집중 단속과 홍보, 과태료 부과 등 선제적인 대응에 나서고 있다.

활동에 앞서서는 진화대, 읍면 산불



담당자 70여 명을 대상으로 산불예방 안전교육을 실시했다. 한국산불방지기술협회 전문강사를 초청해 △산불 재난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 △산불 진화 안전수칙 등에 관한 교육과 진화장비 사용 실습 시간을 가졌다.

산불 발생 시 신속한 초동 대처가 가능하도록 진화 장비도 갖췄다. 군은 12대의 산불 진화 차량과 디지털 무전기 등 30여 종의 장비를 운용 중이다. 최근에는 노후 산불 감시 카메라 4대를 디지털 카메라로 교체해 감시 효율성을 높였다.

장성군 관계자는 "건조한 날씨로 산불 발생 위험이 높을 때에는 무분별한 소각 행위를 반드시 금해야 한다"며 "후손에게 물려줄 소중한 산림자원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 협조 바란다"고 말했다.

이신영/기자

조규일 진주시장, '자전거도로 휴게 쉼터 조성' 현장 점검

대곡면 자전거도로에 화장실 등 시민 편의시설 마련



조규일 진주시장은 7일 대곡면 와룡리에서 대곡면 유관단체장 및 진주시 산악연맹 회원들과 함께 '대곡 덕곡 자전거도로 휴게 쉼터(덕곡 쉼터)' 조

성 현장을 방문해 점검했다. 대곡면 와룡리 일원 자전거도로변 쉼터 주변에는 자전거도로와 암벽등반을 연습할 수 있는 '남강암' 등의 즐

길거리가 있어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만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이 없어 이용객들의 불편이 있었다.

시는 시민들의 편의를 위하여 총사업비 1억 7천만 원을 투입해 수세식 화장실 및 자가 태양광 발전시설 등을 갖추고 주변에 수목 식재해 휴게 쉼터를 조성했다.

이날 현장을 점검한 조규일 시장은 "화장실 등의 편의시설 설치로 시민 불편을 해소함으로써 생활체육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쾌적한 여가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속해서 환경을 정비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최광용/기자


의성군



항공물류중심 공항도시 의성



영등포구, 미래 통쾌한 대입 전략 푼다... 대입 정시 지원전략 설명회 개최

대학별 입시요강 분석, 가/나/다 군별 지원전략, 성적별 맞춤 전략 등 특급 비결 안내

영등포구가 11월 25일 10시, 영등포아트홀에서 성공적인 입시 설계를 위한 '대입 정시 지원전략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구는 2024년도 변경된 입시제도와 모집요강에 대비하여 수험생과 학부모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입시 전략을 수립하는 데 도움을 주고자 이번 설명회를 준비했다.

이번 설명회는 입시 전문가인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 우연철 연구소장이 진행을 맡는다. 가장 기본적이고 핵심을 잘 간추린 '정시 합격 전략'을 주제로 수능 난이도의 변화와 가제점 결과에 따른 입시 결과 예측, 성적별 맞춤 전략, 주요 대학별 정시모집 요강, 정시 지원 전략 꼭 확인해야 할 사항 등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각종 입시 정보를 속속히 소개할 예정이다. 이후 질의응답을 통해 추가적으로 궁금증을 해소하는 시간을 갖는다.



시간을 갖는다.

또한 참가자들에게 진학사 2024 정시자료집과 배치참고표(가제점 기준)를 제공한다.

설명회는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선착순으로 사전 신청한 300명 대상으로 진행된다. 참석을 희망하는 입시생 및 학부모는 11월 6일 오전 10시부터

영등포대학입학정보센터 누리집 내 알림창을 통해 신청하면 된다. 다만 자녀와 학부모가 함께 참석하는 경우라면 각각 신청해야 한다.

덧붙여 구는 수년간의 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입시 전문가의 1:1 상담도 진행한다. 상담은 대학입학정보센터에서 진행되며, 구민이라면 3회에 한하여 무료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청 방법은 대학입학정보센터 누리집을 통해 상담일 3일 전까지 사전 예약하면 된다.

최호권 영등포구청장은 "수험생과 학부모들이 진학에 대한 어려움과 불안을 해소하고, 다양하고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고자 이번 설명회를 마련했다"라며 "앞으로도 교육정보 격차 해소와 학생들의 미래를 위한 다양한 교육정책으로 명품 교육도시를 조성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

박황신/기자

조성명 강남구청장, 바르셀로나에서 '스마트 시티展 서울관' 참가



조성명 강남구청장이 7일부터 9일까지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리는 '2023 스마트 시티 엑스포 월드 콩그레스(Smart City Expo World Congress, SCEWC)'에 참가하고, 7일 서울관 오픈 행사에서 강남구의 우수한 스마트시티 정책을 알렸다. 바르셀로나 시청(Ajuntament de Barcelona)과 피라 바르셀로나(Fira de Barcelona)가 주최·주관하는 SCEWC는 2011년 시작해 매년 약 140개국, 700여개 도시가 참가하는 세계 최대 규모 스마트 시티 전시회이다. 올해는 디지털 전환, 도시 환경, 모빌리티를 비롯한 8개 분야의 전시가 진행되며, 세계 각국의 도시 관계자, 기업인, 전문가 등 2만여 명이 참여한다.

강남구는 서울디지털재단, 동대문구, 서초구와 함께 피라 바르셀로나 전시장에 홍보부스 '서울관'을 꾸렸다. '강남, 디지털을 품다'를 주제로 강남구의 스마트시티 실증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5개 기업이 함께 참여해 다양한 디지털 솔루션을 소개한다. 조성명 강남구청장은 "세계적인 엑스포 행사에 참여해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에 강남의 우수한 스마트 도시 정책과 사례를 널리 알리겠다"며 "아울러 세계 여러 도시의 우수 사례를 벤치마킹해 스마트 시티 분야를 선도하는 강남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동희/기자

성북구 삼선동 주민자치회, "할머니 이야기해 주세요!" 세대를 잇는 어르신 동화 구연

관내 어린이집 어린이 30여 명을 대상으로 세대를 이어주는 동화구연을 시연



서울 성북구 삼선동 주민자치회(회장 노영식)가 지난 10월부터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세대를 이어주는 동화구연 사업을 진행했다.

참여 어르신들은 삼선실버복지센터와 동주민센터에서 총 4회에 걸쳐 스피칭 기법, 스토리텔링 등 동화구연에 필요한 다양한 교육을 받았다. 60명 이상이 교육에 참여할 정도로 본 사업에 대한 관심이 뜨거웠으며, 교육 내용을 바탕으로 삼선동 주민자치회 위원(계원미, 장정순)이 직접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구연 동영상 제작하기도 했다.

교육을 통해 축적한 노하우와 제작된 동영상을 토대로 삼선동 주민자치회는 지난달 31일 성북구청 바람마당에서 개최된 제2회 성북구 주민자치 성과공유회 삼선동 부스에서 관내 어린이

집(삼선뜰어린이집) 어린이 30여 명을 대상으로 세대를 이어주는 동화구연을 시연했다. 어린이들의 안전과 쾌적한 관람 환경을 위해 회차당 10여 명씩 나눠 진행했으며, 주민자치회 위원과 전문강사가 5~6세 어린이들을 위한 동화구연을 시연했다.

부스를 방문한 어린이들마다 약 20분 정도 동화구연 시연을 관람했으며 인근 부스에 방문해 다양한 체험활동과 사진 촬영 등을 통해 추억을 쌓았다. 행사를 주관한 노영식 삼선동 주민자치회장은 "삼선동 주민, 특히 어린이들과 함께 추억을 공유할 수 있는 행사를 기획하고 실행할 수 있어서 뜻깊은 시간이었으며 행사 진행을 위해 애써주신 삼선동 주민자치회 위원 여러분들께 감사 인사를 드린다. 앞으로도 주민과 함께하는 삼선동 주민자치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양순 삼선동장은 "민·관·학이 함께 참여하고 소통하는 기회를 만들어주신 노영식 삼선동 주민자치회장 및 주민자치회 위원분들께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주민들과 함께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업 진행할 수 있도록 삼선동 주민자치회와 함께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서울 성동구 송정동은 오는 11일 송정제방길에서 제6회 송정마을 단풍축제를 개최한다.

송정제방길은 종량철을 따라 뱃나무와 은행나무가 이어져 서울시의 걷고 싶은 거리로 선정된 명소로, 송정동 주민뿐만 아니라 많은 시민들로부터 사랑받는 산책로이다.

이번 행사에 앞서 11월 8일부터 10일까지 송정제방길에서 청년기업의 다양한 플라마켓과 체험관 등이 사전행사로 진행되며, 11일에는 낮 12시 30분부터 송정단풍길 걷기 행사를 진행한다. 또한 오전 11시부터 오후 7시까지 청년 기업들의 제품전시 및 플라마켓 운영, 가을 풍경에 맞는 버스킹 공연 등이 펼쳐진다.

또한 이날 행사 현장에서 복지 사각지대 발굴을 위한 상담 및 캠페인 활동을 진행하며, 플라스틱 컵을 재활용한 개운죽 심기, 스칸디아모스 심기, 양말목공예로 화분만들기, 풍선아트 등 리사이클 체험 및 주민들을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다채로운 체험관을 운영한다.

송정동은 2015년부터 봄가을에 벚꽃축제와 단풍축제를 개최하고 있으며, 올해로

성동구 송정동, 오는 11일 제6회 송정마을 단풍축제 개최

송정제방길에서 단풍길 걷기, 청년기업 플라마켓, 체험관, 버스킹 공연 등 열려

여섯 번째 지역문화축제인 단풍축제는 지역주민들로 구성된 송정마을 축제 추진위원회(위원장 김중인)가 주체가 되어 기획하고 추진함으로써, 일상의 공간에서 예술을 공유하는 특색있는 송정동만의 지역 축제가 되고 있다.

김중인 축제추진위원장은 "2015년부터 벚꽃·단풍축제를 진행해 왔는데 이번에는 축제추진위원회에서 송정동 발전을 위해

청년기업 유치나 체험관 운영 등 다양한 준비를 했고, 각 직능단체원들의 자원봉사로 안전하게 축제를 치를 수 있도록 준비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봉은 송정동장은 "이번 단풍축제는 기획부터 실행까지 지역주민들의 아이디어와 힘을 모아 준비했으며 많은 분들이 참여하고 즐길 수 있는 축제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성원/기자

상주시

기업하기 좋은 도시

For more success with SANGJU

더 큰 성공을 위한 선택



www.yyg.g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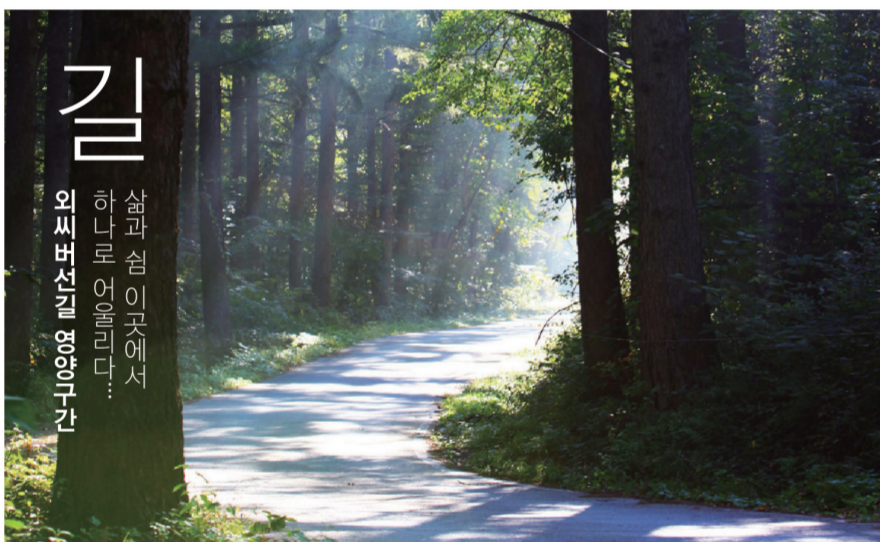
영양 들여다보기

한걸음 다가갈수록
영양의 속살이 느껴집니다
하루라도 좋고
며칠 묵으시면 더 좋습니다
찾아낼수록 매력이 샘솟는
영양으로 오세요



ZOOM

들여다볼수록 매력이 솟아나는 영양나들이... 마음을 두고온 **영양**, 사진에 담아온 **영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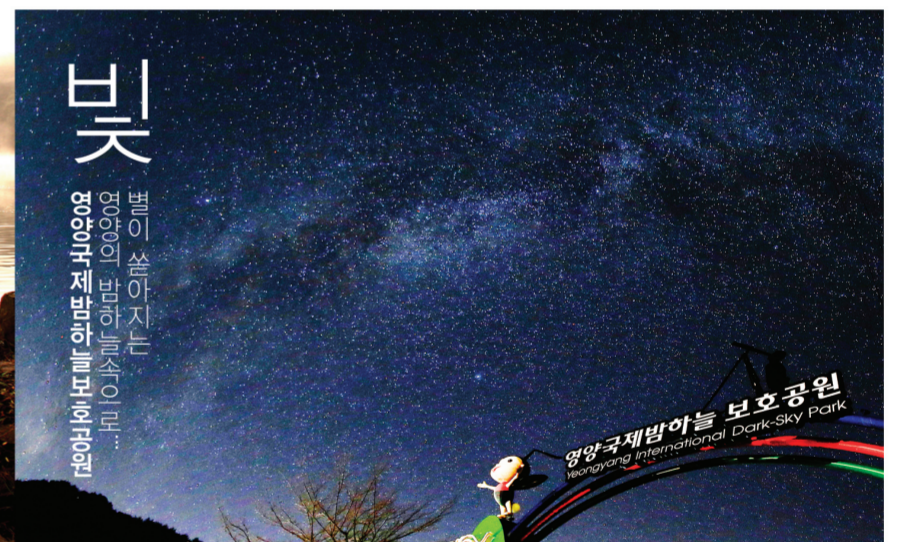
길

삶과 숨이곳에서
아름답게 영예롭고...
영양에서 영예롭고...



물

영양의 맑고
영양의 맑고
영양의 맑고



빛

별이 쏟아지는
영양의 밤하늘...
영양의 밤하늘...
영양의 밤하늘...



얼

시공간의 대가
영양의 서적지



맛

사백년 이어온
반가의 레시피...
장계향의 음식디미방



심

자연과 벗하던 선비의
기품이 깃들다...
영양의 서적지



숲

한곳에서 가장
아름다운 숲...
조지훈과 주실마을

감동을 이어가는 스토리텔링! 영양나들이

- **영양의 자연** _ 일월산, 선바위와 남이포, 삼의계곡, 수하계곡, 본신계곡, 침벽공원, 측백수림, 외씨버선길
- **영양의 역사** _ 음식디미방, 서석지, 두들마을, 주실마을, 감천마을, 지경마을, 금촌마을, 검산성, 옥산마을
- **영양의 박물관/공원** _ 영양국제밤하늘보호공원, 반딧불이천문대, 영양생태공원, 영양고추홍보전시관, 일월산자생화공원, 영양풍력발전단지, 흥림산자연휴양림, 양양산촌생활박물관, 분재수석야생화전시관

